

여성주의 놀이터 프로젝트 잡지

2008. 1 호

내 눈에 사과

특집 <밥>
황단하며 살 붙이는 이야기
바보노의 정세판단
상어의 애완동물해방론
오늘의 트라우마
연애 치고 빠지기
공간 더듬기
드라마 뜯기
서평 <달빛 아래서의 만찬>
경험으로 박힌 음악

여성주의 놀이터팀 <우주전복계획단> 프로젝트 잡지

내 눈에 사과

성령 다가서는 일상의 여성주의
20대 총여학생회 「틈을 누비다」



“You are the apple of my eye”

20대 총여학생회 「틈을 누비다」

여성주의 놀이터 프로젝트 잡지

내 눈에 사과



C O N T E N T S

특집 : 밥

- 02 밥 지도 그리기
- 03 서로를 향한 밥상
- 05 먹을수록 쓰레기가 많이 나와
- 08 할머니의 식은 밥
- 10 먹는다는 것, 먹지 못한다는 것
- 15 페미니스트 밥상 예절
- 16 배고파서 그랬어
- 18 영화랑 상관없는 밥보기

20 횡단하며 살 붙이는 이야기

- 여성주의자가 등록금을 이야기한다는 것
- 나는 페미니스트이다
- 채식주의자는 먹을 것이 없어

- 26 바보노의 정세판단
- 30 상어의 애완동물 해방론
- 35 공간 더듬기
- 38 오늘의 트라우마
- 40 원지 오를 연애, 치고 빠지기
- 45 드라마 풀기
- 48 여성주의 서평
- 51 경험으로 박힌 음악
- 55 강의실 통일은 이야기
- 56 후기



지도 그리기

문득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보려고 밥을 새우며 글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여성주의를 너무 사랑하고 여성주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중요했고, 여성주의자로 사는 것이 모두를 즐거워 말하지 않고는 못 배겼습니다. 우리의 프로젝트는 낮이 머리를 맞대고 이구백을 시작했어 먹으며 그게 시작이 되고, 내 눈에 사과를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되게 시작했지요. 나의 은은한 18년전 친구는 우리들이 이 여성주의 놀이터 프로젝트 잡지 <내 눈에 사과>에서 쓴 글에 대한 설명을 들려 주니 "너희 그렇게 살을 위하여는 글을 쓰다가 조만간에 피아프를 쓴다. 피아프를 한번만 있어"라고 은은하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알렸듯이, 우리는 각자 가슴 한 쪽씩 실을 꿰어내는 글들을 썼습니다. 평소의 이야기 할 수 없었던,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기억해내기 괴롭고 내내 머리를 고문하던, 우리들의 고민이고 삶이고 생동이며 경한민 이야기였습니다. 정말로 20대 과로사를 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생애는 오래오래 생각해보던 동물과의 관계맺음에 대해서 말문을 트기 시작했습니다. 공존하는 모든 것과의 관계를 성찰하는 페미니스트의 기본자세를 고수하며, 동물의 밥인 사료를 통해 인간 사회의 동물 억압과 폭력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나누기가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경제 상으로서의 배고픔에 대한 이야기와 자원이 쏟아낸 먹는 것을 억압했던 기억이, 이 다른 세계에서 함께 만나는 순간의 밥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보려는 엄마의 밥상을 생각하며 착착가 없는 딸의 밥상을 조심스레 내려놓기도 했습니다. 가부장제 사회가 만들어낸 할머니의 밥에 어찌 손댈 수 없는 페미니스트 나누기의 갈등 또한 녹아있습니다. 즐겁고 사랑하며 함께 살기 위해서, 서로 먹으며 지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페미니스트 밥상 예절을 구상해 보기도 했습니다. 군대군대 밥에 대한 우리들의 문제의식을 담은 웃기는 사진들도 있고, 영화 속에서 먹는 사람들을 관찰하며 투덜대기도 했지요. 음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여성들의 목소리를 담은 책 <달빛 아래서와 만찬의 서명>도 한 자리 하고 있습니다.

정작 글을 쓰는 사람들은 밥을 제대로 먹지는커녕 컵라면을 먹고 배탈이 났다며, 위장병이 도졌다며, 총아실을 대공대공 구르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동해 나옴가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한 상이 되기 를 바라며, 맛나게 읽으세요 ●

(우주전복계획단)



밥상

많은 아이들이 그랬겠지만, 나의 아침은 부엌에 불이 켜지고 엄마가 바가지에 쌀을 부어 찰박찰박 씻는 소리로 시작되곤 하였다. 엄마는 늘 새벽 네 시에 일어나서 쌀을 씻어 안치고 잠깐 잠자리에 들어 새벽의 찬 기운을 잠시 녹이고, 곧 다시 일어나 식구들의 밥상을 챙기곤 했다.

아침은 아침이나 모두에게 다 다른 아침이어서, 엄마는 식구들 수만큼의 아침밥상을 차려야만 했다. 수험생이었던 나는 항상 잠이 모자랐다. 간장 한 숟가락과 참기를 몇 방울에 계란 후라이를 속속 비빈 밥을 오래 묵어 쉬어빠진 김치와 함께 5분 만에 해치우고 나갔다. 엄마는 퐁퐁 부은 눈으로 입에 밥을 옮기는 내 옆에 앉아 김치도 찢어 얹어 주고 물도 떠다 주고 꼭지 탄 딸기를 억지로 입에 넣어 주기도 했다. 그리고 꼭 아파트 현관을 급하게 뛰어 나서는 내 뒷모습에 대고 손을 흔들어 주었다. 그 다음으로 집을 나서던 동생은 두부를 네모지게 썰어 넣고 연하게 끓인 된장찌개를 좋아했기 때문에 아침일찍 엄마는 두부를 사러 슈퍼에 가야하기도 했다. 어떤 날은 국만 끓이기도 했는데, 국에 있는 고기는 꼭 하나하나 다 건져내는 동생이었지만 동생 국그릇의 고기는 다른 가족들의 고기의 양과 늘 비슷했다. 늦잠을 자도 샤워를 30분은 해야 하는 동생이어서 밥 먹을 시간은 당연히 부족했고, 엄마와 싸우고 부부 통째로 집을 나서기 일쑤였다.

아빠의 밥상에는 구운 생선이 있어야 했고 생김치가 있어야 했고 따뜻한 국이 있어야 했지만, 정작 아빠는 전날 마신 술로 깨우기도 힘들었으며 출근시간이 다가오면

그 모든 음식들 대신 물 한잔만 마시고 짜증을 내며 급하게 나갔다. 나이가 많은 할머니는 아침잠이 없었고 아빠와 둘이 마주한 상에서 아빠가 손도 대지 않은 음식을 꼭꼭 많이 드셨다. 엄마는 할머니가 생선뼈를 한 움큼 뺏어 놓은, 그 밥상에서 그제야 밥을 먹을 수 있었다. 우리 막내가 그 시절에 밥을 먹었는지 분유를 먹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엄마의 하루의 반은 밥을 짓는 시간이었다. 늙은 할머니는 끼니때마다 엄마를 찾아 온 동네를 돌아다녔고, 때때로 돌아오지 않았던 엄마에 대한 걱망을 아빠의 귀가 시간에 풀어놓곤 했다. 동네 사람들에게 '할머니가 엄마를 찾더라'는 말을 듣기 전에 엄마는 집으로 들어와야 했고, 엄마의 행동반경은 그리하여 밤시간에 좌우될 수밖에 없었다. 아빠의 퇴근시간은 정해져 있었고 아빠가 저녁 시간에 맞추어 집에 오든 오지 않든 아빠를 위한 저녁밥상은 늘 준비되어 있었다. 유달리 입맛이 까다로웠던 아빠는 맛있는 반찬이 있으면 '좀 더 이 반찬의 맛을 증진시키기 위해 보충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마음에 들지 않는 반찬 밥에 없으면 말없이, 그러나 표정으로 백만가지 말을 하며 젓가락을 식탁 위에 탁, 놓고 방에 들어가 티비를 보곤 하였다.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늦은 밤에도 아빠는 꼭 밥을 찾았다. 어떤 날은 라면이 되기도 했고 어떤 날은 밥이 되기도 하였지만, 엄마가 그 밥상을 차려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다. 결혼 후 깊은 잠을 자곤 적이 별로 없었던 엄마는 묵묵히 아빠의 밥상을 차려내었고, 창문 하나로 부엌과 바로 이어져 있던 그 방에서 나와 동생은 이불을 덮어 쓰고 숨죽이고 있다가, 어느 순간 잠에 빠지곤 하였다.

나는 집안일에 관심도 없었고, 라면 하나 제대로 끓이지 못하는 딸이었다. 엄마는 그런 딸을 자랑스러워했다. 국 하나 끓일 줄 모르고, 과일 하나 제대로 꺾을 줄 모르고, 청소를 해도 한 것 같지 않은 우리 큰 딸은 나중에 큰일을 할 사람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사실 엄마라고 해서 태어날 때부터 집안일을 잘 한 것은 아니었을 테니, 엄마의 그런 딸은 딸이 나중에 '자신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았으면' 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었으리라. 나는 엄마의 그런 마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엄마를 항상 생각하는 착한 딸이었다. 나는 절대로, 애들



먹을수록 쓰레기가 많이 나와

유달리 입맛이 까다로웠던 아빠는 맛있는 반찬이 있으면 '좀 더 이 반찬의 맛을 증진시키기 위해 보충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마음에 들지 않는 반찬 밖에 없으면 말없이, 그러나 표정으로 백만가지 말을 하며 젓가락을 식탁 위에 탁, 놓고 방에 들어가 티비를 보곤 하였다.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늦은 밤에도 아빠는 꼭 밥을 찾았다.

교복 블라우스나 빨고, 술 취한 남편의 밥상을 차려내는 그런 여자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엄마 앞에서 수도 없는 다짐을 하였다. 시간만 나면 엄마가 밥을 짓는 싱크대 옆에서, 빨래하는 배란 다 문턱에 앉아서, 청소하는 거실 피아노 의자에서 엄마의 음식 솜씨가 얼마나 훌륭한지,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무슨 칭찬을 하였는지, 얼마나 어려운 책을 읽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해 설 새 없이 조잘대는 '착하고 자랑스러운 딸'의 역할을 수행했다. 무거운 짐을 들어서 손목이 아팠고, 아빠 몰래 하던 보혈일 때문에 항상 다리가 퐁퐁 부어 있었고, 밤이면 밤마다 무서운 꿈에 시달리느라 수면 부족으로 몽롱해했지만 엄마는 절대로 딸에게 집안일을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다. 가끔, 아주 가끔 나는 선심 쓰듯 거실이나 방을 청소하고 어쩌다 엄마가 하지 않은 설거지를 한 후, 생글생글 웃으며 칭찬을 기다렸다. 그리고 엄마는 '이렇게 엄마를 배려하는 착한 딸이!'라는 표정

라면먹기



맛있다?



파전먹기



또 먹고~



딱간 간식뿐

위 아이잉- 식은 밥 데우는 소리다. 밥통에 따뜻한 밥이 한 숟가락 있지만, 결국 할머니의 선택은 식은 밥이다. 처음엔 슬펐다. 할머니가 가난해 보였다. 두 번째엔 짜증났다. 가부장적 유령이 집안을 떠도는 것 같았다. 세 번째엔 화가 났다. 이 상황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집안 식구들 때문에. 몇 번을 더 보고 나서야 햇갈렸다. 집안 식구들한테 큰소리 치며 할머니를 지지한다고, 할머니한테 공감한다고, 그러니까 할머니랑 같이 밥먹어야 한다고, 할머니도 우리랑 같이 따뜻한 밥을 먹어야 한다고 소리쳤을 때 할머니는 울었다.

식은 밥 데워 먹는 외할머니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보았다. 할라 소리에 금세 잠에서 억지로 자우길 했지만, 할머니의 그 뒷모습에서 할머니에 대한 내 지지와 공감이 식은 밥처럼 굳어버렸다. 욕심하나 없는 늙은 노인네가 뭘 더 아끼자고 일주일도 더 지난 열린 밥을 데워서 먹어야 했는지 난 알 수 없었다. 티비를 보며 웃는 할머니 앞에서 튀어나온 밥풀이 암채공처럼 퐁퐁 뿜어 다니는 걸 보면서 "지진 밥도 아니야"란 생각을 하지만, 그걸 왜 먹고 있는지 난 알 수 없었다. 상상은 한다. 저 식은 밥이 할머니의 정체성일거라고. 하지만 상상이 안 된다. 할머니에게 식은 밥을 강요한, 이내 자연스럽게 만들어버린 저 가부장제의 불길한 기운이 어디서부터 할머니에게로 온 것인지.

할머니의 식은 밥



"할머니 할머니, 왜 자주 식은 밥만 드세요."

"난 이게 좋아."

"아니 어떻게 그게 좋아요, 고가 귀 놓고"

"왜 오래된 김치국만 드세요"

"고기는 나네 먹어 난 싫어."

"아니 이거 먹는다고 살 안썩어요 드세요 같이"

"아니야 배불러"

"아니 근데 왜 식은밥은 왜 드세요."

"하하하 같이 드세요"

"아니야 아니야 다 먹었어 난, 일본 먹어 식는다."

"할머니~"

"아아 노인네는 이런거 먹어도 다 살아, 너나 같아서."

나는 언제나 할머니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가부장제 하에서 50년이나 '아내'로써 '어머니'로써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온 그녀에게 식은 밥은 정체성이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사셨던 할머니에게, 손주 녀석들과 사위가 함께 살게 된 이 상황은 어쩌면 일었던 할머니의 사회적 지위를 되찾는 계기가 될 걸지도 모르겠다. 할머니는 다시 아내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있다. 물론 나는 이러한 할머니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혼자 사시는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 하지만 할머니는 누군가와 같이 살기를 바라었고, 나와 동생에게 따뜻한 밥을 지어주며, 식은 밥 드시기를 자처하셨다. 이것이 할머니의 즐거움이 되어버린 것. 할머니도 모르겠어 그것이 할머니가 생각하는 행복이 되어버린 것에는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할머니 개인의 구체적인 삶 자체를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 누군가의 삶을 내 정의로 재단하고 부정할 수는 없는 거니까.

지지와 공감은 언제나 힘든 과제다. 내가 누군가를 지지한다고 말하는 것,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공감한다고 말하는 것은 건강한 소통의 기본이기도 하지만, 상대방을 타자로 만들기, 상처주기의 기본이기도 하다. 지지와 공감이라는 "좋은 밥"을 함으로써 그 순간, 그 공간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을 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내가 페미니스트이고, 할머니의 식은 밥 사랑, 아니 식은 밥 집착이 가부장제의 부산물이라 하더라도, 할머니가 식은 밥을 빼앗을 수 없을 것 같다. 페미니스트로 딱 한 여성인 할머니를 지지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긴다. 할머니를 가사노동에서 자유롭게 하고, 따뜻한 밥을 먹게 하는 것은 내가 할머니를 지지하고, 공감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 식은 밥을 먹으로써 자신이 아직 살아 있음을, 사회에서, 가정에서 역할하고 있음을 알아가는 할머니에게 "그건 가부장제의 몫을 강요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무섭다.

할머니의 식은 밥은 계속될 것 같다. 가부장제가 철폐될 때 까지 혹은 할머니가 밥을 먹을 수 없을 때 까지. 할머니는 그녀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페미니스트로써 내가 할머니와 소통한다는 것은 그녀의 삶을 가부장제의 폐해로 치부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삶속에서 할머니를 찾을 수 있도록, 식은 밥 속에서도 그녀 자신을 잃지 않도록 함께 이야기 하는 것, 그 뿐이다. ●

by 녹록치 않아, 나누기

내가 처음 내 몸을 뚱뚱하다고 느낀 것이 언제였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 나는 언제나 못생기고 뚱뚱한 아이였고, 주변에서 비교하기 쉽도록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는 예쁜 언니도 있었다. 여섯 살 때에 '돈까스는 살찌니까 먹지 마'라는 말에 괜히 짜증이 나서 이불을 걷어챘다가 혼난 것. 그래서 이불 안에서 눈물을 글썽인 것이 내가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히스테리였던 것 같다. 웃기다. 내가 규정할 수조차 없는 어린 시절이 설명된다는 것은 이렇게나 웃기다.

나는 내 몸이 싫었다. 한 번도 뚱뚱하지 않은 사람인 적이 없었다. 언제나 체중계에 올라가는 것이 두려웠고, 내 몸이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 비웃을만한 대상이라고 생각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내 팔이, 내 다리가, 내 몸통이 만드는 윤곽이 너무 클까 봐, 움직이는 것이 두려웠다. 의연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은 노력일 뿐이었다. 내 몸이 어디로 가지는 않는다. 내 뚱뚱한 몸은 언제나 나를 불안하게 만들며 내게 붙어있었다.

흔히들 다이어트 이야기가 이렇게 눈물이 나는 것임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신문 어디를 보아도 만날 수 있는 다이어트 광고가, 뉴스기사 어디나 클릭해도 밋닥뜨리는 누군가의 몸무게 이야기가 나에게도 호 흡이 괴로워지는 트라우마로 치고 올라온다는 것을 누가 공감할 수 있을까? 누군가 공감하

먹는다는 것, 먹지 못한다는 것

더라도 '못생기고 뚱뚱한 여자들의 신세한탄'으로 비추어질 것이 뻔한 이 글을, 그렇게 읽도록 하는 이 사회를, 그 억압을 나는 혐오한다.

먹을 것을 통제하는 것이 더 작은 몸을 가지는 데 제일이라는 것은 중학교 때 이미 타득했다. 밥을 한 숟갈씩만 먹고 밥상을 떠나기를 일주일간 해서 몇 킬로씩 살을 뺐 적도 있었다. 그러나 중고등학생에게는 많이 먹고 공부 잘 하라'는 '관대한' 명령이 있었다. 여학생으로서 작고 가늘고 예쁘라는 명령과 함께 주어진 모순적인 명령이었지만 그 '관대함'의 권위에 기대고, 다른 명령에 부합할 수 없다는 좌절을 나머지 하나로 채우며 먹어댔다.

그때 나는 내 몸을 긍정해주는 타인을 만났지만, 단 한 번도 그 사람이 진실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나에게 언제나 진실한 사람이었고, 나를 소중히 했지만 나는 언제나 내 몸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다. 그저 나에게 잘 해주고 싶거나, 지나치게 아부한다고 생각했다. 나의 많은 부분들을 긍정할 수 있었던 그 관계맺음에서 내 몸 하나는 절대로 내가 판단하는 불가침의 영역이었다. 나는 내 몸을 절대적으로 혐오했다.

대학에 들어와서 다이어트를 하자고 결심하고 나서는 단식원에 들어갔다. 모든 음식을 먹지 않고, 물조차 마시지 않으면서도 견딜 수 있도록 침을 맞았다. 나에게 허용할 수 있는 음식은 하루에 한 번, 물 반 쌀알 반의 죽 반공기가 전부였다. 매일 체중계에 올라갔고, 매일 손바닥에 백개씩 침을 맞고 그 침을 내 손으로 뽑고, 매일 거울을 확인했다. 몸이 작아지고 있는 것을 숫자로 확인하고, 거울로 확인하며 희열을 느꼈다. 백화점에 가서, 공장에서 나온 기성복이 내 몸에 맞는 것을 확인하며 땀 땀이 기뻐했다. 두려움이 온전히 가시지 않은 채 무릎 위로 올라오는 치마를 사며, 그 치마를 입고 외출하며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나의 굴주림은 재값을 했다.

그리고 지하철 의자에 앉을 수 있었다. 중학교 이후로 지하철 빈자리가 두 개 이상 나지 않으면 앉아서 가기를 꺼렸다. 내 몸이 너무 커서, 내 양덩이가 너무 많은 자리를 차지할까봐, 내 살이 다른 사람들을 짓누를까봐 지하철 의자에 앉을 수 없었다. 놀이공원에서 모르는 사람과는 2인용 놀이기구도 타지 못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이 뚱뚱한 나에게 화를 낼까봐 무섭고, 불편해 할까봐 미안해서 안전부절을 못 했다. 그런데 내가 지하철에 앉을 수 있었다. 그 사실이 너무 뿌듯해서 미칠 것 같았다. 그러면서도, 백화점에서 파는 옷을 입을 수 있게 된 나에게 갑자기 친절해진 직원이 싫었다. 치마를 입은 나에게 잘 해주는 사람들이 재수없었다. 내가 지하철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비켜주는 사람들이 혐오스러웠다.

그 신나는 '가벼운' 나날은 오래지 않았다. 굶어서 살을 빼면 근육량이 감소하고 기초대사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보다 덜 먹어도 살이 잘 쏠린다. 그동안 만나지 못하던 사람들을 만나며 먹을 수 있던 음식들을 먹으며 이 정도는 먹어도 괜찮겠지, 괜찮겠지 했다. '너무 많이' 먹어서 체중이 올라가고 얼굴이 부었다 싶은 날에는 일부러 토했다. 처음에는 손가락을 넣어서 일부러 토했고, 나중에는 익숙해져서 변기만 쳐다보아도 저절로 토했다.

토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살을 빠지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많이 먹고 다 토해내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 위장을 늘리고, 정신적으로 충족되지 않아 언제나 배고프도록 한다. 결국 살 빼기 전의 몸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새로 산 치마는 올라가지 않고, 억지로 끼워 입으면 굵고 흉물스러운 다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래서 긴 청바지만 입고 다녔다. 며칠 굶어보아도 효과가 없고 자주 먹게 되어서 다시 단식원에 갔다. 일년만에 단식원에 세 번을 들락거렸다.

먹지 않는 것으로 내 몸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생기기도 했다. 주변의 여성주의자 친구들이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몸을 긍정하는 것과 다이어트를 설명했고, 스스로 십식장에 대한 책을 찾아 읽기도 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먹지 않는 것, 토하는 것을 걱정했다. 나는 여성주의자로 정체화하고 싶어 했고, 문제의식을 키워가고 있었지만, 내 뚱뚱한 몸만은 양보할 수 없는 것이었다. 나에게 커다란 몸은 절대 긍정할 수 없는 당연하고도 강력한 트라우마였다. 내가 신뢰하는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다. '내가 여성주의적이지 못하다고 비난하는 그때 나는 사람들을 뚱뚱하게 무서워했다. 정말로 "다이어트를 해? 난 여성주의자가 아니지"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고, "난 여성주의자가 왜 너의 몸을 긍정하지 못하니?"라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었다. 물론 "다이어트는 너의 몸을 긍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성 억압 사회의 명령이고, 너는 복종하지 않아도 돼"라고 옹호하는 사람도 있었다. 다음 다른 차이를, 다른 목적으로 말했지만, 나는 내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들 모두가 나를 비난하는 것처럼 느꼈고, 그들 모두가 뚱뚱하게 무서웠다.' 그들에게는 비밀로 하고 나는 끊임없이 굶고, 단식원에 가고, 토해냈다.

남들 앞에서 먹는 것이 무서웠다. 폭식증 환자처럼-사실 폭식증 환자였지만-급하게 많이 먹는 것이 들릴까 무서웠고, 먹고 또 토할까봐 무서웠다. 토하는 것이 들릴까, 살빼기 위해 일부러 하는 것으로 보일까 무서웠다. 집 밖에서는 밥을 먹지 않으려 노력했다. 배고픈 채 집에 돌아와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다 먹었다. 조리도 되지 않은 음식물들이 다 맛있어보여서 먹지 않고는 못 배겼다. 냉장고에 음식이 없음을 아는 날에는 편의점에서 인스턴트식품을 사다가 먹었다. 한 번에 만 원어치씩 먹었다. 그러고는 한꺼번에 토해냈다. 위산에 슬려 이가 까끌거리고 목에서 피가 날 때까지 토했다.



남들 앞에서 먹는 것이 무서웠다. 폭식증 환자처럼 급하게 많이 먹는 것이 들릴까 무서웠고, 먹고 또 토할까봐 무서웠다. 토하는 것이 들릴까, 살빼기 위해 일부러 하는 것으로 보일까 무서웠다. 집 밖에서는 밥을 먹지 않으려 노력했다. 배고픈 채 집에 돌아와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다 먹었다.

너무 힘들었다. 체력이 떨어져서 조금만 걸어도 헉헉거렸고, 담배를 피우거나 지하철에 타면 가슴이 딱딱 막히고 숨 쉬기가 힘들어서 욕지기가 올라왔다. 점점 천천히 걷기에 익숙해졌고, 몸을 가누기가 힘들어서 아무데서나 아무데나 기대어 있었다.

좋은 친구들을 만났다. 변화해야겠구나 싶어 조금씩 애썼다. 한서설아의 '다이어트의 성경'을 읽었다. 자주 거울을 보며 내 몸을 보는 것에 익숙해지려 노력했다. 과일같은 내 다리와 너무 큰 내 팔과 흉측하게 처진 내 배를 보다보면 웃기고 슬펐다. 내 몸을 부정하던 가장 가까운 사람들-나를 볼 때마다 '살 빠졌네, 얼굴이 커다라졌네'를 말하던 엄마와 '그만 먹어 야지, 살췌네'를 입에 붙이고 사는 언니를 멀리 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엄마는 1년 동안 멀리 여행을 가게 되었고, 언니는 직장이 바빠서 얼굴을 보기도 힘들었다. 나는 조금씩 나아졌다. 살이 붙어갔지만, 점점 굵은 팔다리에 관대해져서 아무 옷이나 입을 수 있게 되었고, 땀한 얼굴로 일어나자마자 거울을 살피는 일도 줄어들었다.

그 기억이 '추억'이 될 수는 없었다. 내 몸을 긍정하지 못한 내가 '여성주의자'로서 부끄러워 미칠 것 같았다. 내가 다이어트를 한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것을 떠올리면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다. 그 기간에 만난 사람들이 나를 보면 '침 맛아가며 살 뺐는데 실패한 애'로 기억할 것 같아 두려웠다. '살이 편다'가 '죽고 싶다'로 바로 치환이 되던 나의 상태를 떠올리고 싶지 않았다. 먹지 않고 살을 빼는 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지배하던 나날을 머릿속에서 지워내고 그 기간을 통째로 삭제해버렸다.

그러나 몸은 그때의 가혹함을 기억하고 있다. 이전에는 없던 버릇이 생겼다. 한 달에 한두 번은 위장이 아파서 배를 움켜쥐고 염마를 부른다. 생각하기조차 힘들고 괴로운 일을 해서 스트레스가 쌓이면 아무 이유 없이 구역질이 나서 먹은 것이 있진 않진 한참이나 변기를 붙잡고 토해낸다. 한 번 시작하면 노랗게 뭉쳐있는 위액과 초록색 장액까지 토해낸다. 위액 덩어리가 나오다가 식도에 걸리면 타들어가는 듯이 아프고, 이 고통이 며칠은 갈 것을 알기에 절망한다. 말로만



둔든 장액을 눈으로 확인하던 그 날은 번기를 붙들고 영영 울었다.
위장이 없는 동물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 그렇게 생각했다. 위장이 너무 아프고, 토하느라 다친 목구멍이 너무 아프고, 위산에 까갈거리는 이가 아프고 혀가 너무 오래오래 써서 그렇게 생각했다. 토병 없이 살고 싶다.

몸이 작아지도록 먹는 것을 조절해, 너의 스트레스와 히스테리를 먹는 것으로 조절해.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해준 조언이었지만 그 조언들은 다 틀렸다. 먹는 것이 내게 중요해진 것은 틀렸다. 나를 망쳤다. 차라리 그 중요한 위장이 없이 태어났어야 했다.

밥을 제때 규칙적으로 먹어, 건강해지도록 잘 챙겨 먹어. 많은 사람들이 나를 걱정했지만, 그 걱정은 다 틀렸다. 나의 음식을 섭취에 신경을 쓰는 것은 틀렸다. 나에게 먹을 것을 통해서 내 몸을 보살피거나 억압하거나, 그 무엇이든 몸을 통제하도록 하려는 모든 시도는 틀렸다. 요즘은 그냥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는다. 컵라면이 먹고 싶으면 컵라면을 먹고, 다들 밥을 먹는데 먹기 싫으면 먹지 않는다.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이틀씩 지나도 배고프지 않으면 먹지 않고, 배가 부른데도 아이스크림이, 과자가, 밥이 더 먹고 싶으면 먹는다. 새빨간 김치만 한 그릇씩 먹기도 하고, 오밤중에 잡채에 오뎅국에 갇은 반찬 다 꺼내어 저녁상을 차려 먹기도 한다. 몸이 불편할 것 같아서 먹지 못할 때에는 좀 억울하기도 하지만, 그럴 때에는 그냥 몸이 하라는 대로 한다. 그게 나를 편하게 한다. 내 몸이 괴롭지 않도록 한다. 다행이다. 내가 먹는 데 집착하지 않게 되어서 다행이다. 머리로 명령하고 몸이 받아들이도록 우기기를 포기해서 다행이다. 먹는 것, 먹는 방식, 먹는 행위, 그 결과가 나를 지배하지 않게 되어서 다행이다. 내 몸과 싸우지 않게 되어서 다행이다. 오랜 싸움 끝에, 그게 난 다행이다. ●

나는 조금씩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내 몸을 억압했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몸을 긍정하기를, 다이어트 권하는 사회의 폭력성을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은 나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기를 바라며 글을 쓰고 몸에 대한 여성주의 세미나에서 발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이어트의 성정치 만 앞머리에 한사십아 씨가 쓴 문장, "자신의 몸을 사랑하지 못해 고통받는 여성들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를 보며 눈물이 나는 바로 그 감정을 긍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글은 울면서 쓴 글이고, 쓰고 나서 더 많이 울었다. 다 쓰고 나서 다시 보며 울고 또 보면 또 울었다. 버스에 서 문득 생각이 나도 울고, 옷을 갈아입다가 생각이 나도 울었다. 울음이 멎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많이 울었다. 한 번도 고치지 않은 글을 읽은 비보노가 다가와서 어러를 쓰다듬은 이후로는 좀 덜 울었다. 이런 말하기의 치유를 감행하면서 언젠가는 답답해지겠지, 언젠가는 명은해지겠지, 생각한다. 이 글을 쓸 수 있게 된 것도, 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by 눈물 뚝, 자몽

페미니스트 밥상 예절



첫 번째 장보기

- 아무리 싸도, 욕심부리지 말고, 먹을 만큼만 산다.
- 과도한 포장인 식재료는 사지 않는다.
- 노동착취 선두 마트, 홈에버·뉴코아에는 투쟁 이외의 일로 가지 않는다.
- 누구와 먹을 음식을 만들 것인지, 그 사람의 식습관은 무엇인지 한번은 생각해보고 산다.
- 실제로 유통 과정에 존재하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착취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두 번째

밥상차리기 혹은 식당 고르기

- 요리는 이성애자 남녀노소, LGBTQ 등 모든 정체성을 막론하고, 누구나 잘할 수 있거나, 혹은 못할 수 있다.
- 같이 밥먹는 모두가 먹는 데 불편하지 않은 밥상을 차린다.
- 남지 않도록 먹을 만큼만 요리한다.
- 조미료를 많이 쓰지 않는다.
- 식당을 고를 땐, 같이 밥 먹는 사람들과 소통하며 고른다.

세 번째 먹기

- 맛있게, 신나게, 재밌게 먹는다.
- 맛을 것으로 자신의 몸을 억압하지 않는다.
- 누가 먼저 먹든 상관하지 않는다.
- 대화하며 먹는다.
- 누군가의 먹기에 시비걸지 않는다.
- 누군가의 요리를 비판할 수 있으나, 비난할 수 없다.

네 번째 치우기

- 밥을 먹었으면 각자 싱크대까지 운반한다.
- 설거지는 돌아가면서, 내지는 그날 그날 임시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 웬만하면 음식은 남기지 않아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남긴 음식은 온갖 방법으로 최대한 재활용한다. ●

by 나도 잘 할거야, 나누기

후 들거린다. 걷는게 세상에서 제일 싫은 순간이다. 한여름 주말 저녁 바는 맥주를 찾는 손님들로 들끓었고,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어두운 조명 속에서 8시간이나 서빙을 한 후였다. 칩, 청소하다 주는 담배를 꺼내문다. 그건 일미리였고 어차피 내맘대로 되는건 없다. 망할 놈의 세상이라고 읊조리게 되는 순간은 언제나 이맘 때 즈음이다. 새벽은 이미 3시였다. 네온 싸인이 꺼지지도 않는 신촌거리라는 휘청거린다. 한여름이어서, 또 누군가에게 한강에 나가야 할 열대야일지라도, 새벽일을 끝낸 나에겐 새벽은 으슬으슬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때쯤이면 이미 배고픔, 그 역겨운 자기위로는 시작된다. 공복은 배부름과 별반 다르지 않다. 졸립다는 점에서, 항상 시작은 그렇다. 말장난으로부터 시작된다. 고파야 하는 것은 배였다. 그렇게 정해져있었다. 내가 결정한건 아무것도 없었다. 배가 고른게, 생명 연장을 위해서 당연한 것이라면 난 지금 배가 고파선 안됐다. 난 배고프기 때문에 살지 않는다. 살다보니 배가 고프다.

배고파서 그랬어



가난은 쉽게 배고픔이 된다. 아주 쉽게 그렇게 된다. 여기까지 생각하면 버스가 끊겼으며, 내가 버스정류장에 서 있는 것이 의미 없다는 걸 알게 된다. 옆집 가게 주인이 소리친다. 배고프면 밥 먹고 가라고, 그래서 가난은 쉽게 배고픔이 된다. 나는 가난한 사람이다. 배고픔이, 그 자연스럽기 '그지없는' 생리 현상이 '그지같고' 역겨운 이유는 거기에 있다. 내가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에, 내 호주머니에 동전 4개가 400원이 아니라 350원이라는 것에서 50원의 부재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에. 나는 내가 배고프다고, 배가 고른건 당연하다고 그렇게 날 위로했다. 그래야만 새벽 3시에 흥청망청한 거리에서 350만으로도 자존감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 가난함은 단순히 돈 없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명백하게 내 정체성이다. 나는 가난함으로 나를 설명하며 살아야 한다. 그래서 나는 배고픈 사람이기 싫었다. 하지만 배고픈 사람이어야 했다. 가난한 사람이 유일하게 긍정되는 건, 그 사람이 배고플 때

뿐이니까.

생각은 생각보다 길어지고, 그만큼 집에 가는 길은 짧아진다. 생각보다 집에 일찍 도착하면 또 그만큼 일찍 혼자가 된다. 게다가 오늘은 친구가 고향집에 내려갔다.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 물골을 보면 친구 역시 물었을 테니까. 너 배고프냐? 라고, 그럴때가 싫었다. 누군가의 배고픔보다, 나의 배고픔이 특별해 질 때, 그 순간이 나는 너무 싫었다. 세상은 원래 밥먹고 살기 어렵게 생겨먹은 거고, 나는 그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때론 굶기도 하고, 때론 과자 반찬에 밥을 먹기도 하는 거였다. 그런데 왜 나의 배고픔은 특별한 것이 되어서, 나에게 부담이 되고, 잘 못먹고 사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불쌍한 애가 되어야 하는 걸까.

아무렇게나 TV를 틀어놓고, 드러눕는다. 밤바닥이 옥션옥션 거리는 통에 신경질이 난다. 돈이 없다는 것에 대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잘못된 것은 없다. 언제나 고파야 하는 배를 원망하며, 가난한 사람인 나를 부정하고, 돈이 없는 나를 부정하고, 열심히 돈 벌지 못하는 나를 부정하고, 새벽일 한답시고 낮에는 아무일도 하지 않는 나를 부정하고, 이렇게 온갖 '나' 들을 부정하고 나서야, 눈물 찼끔 한 방울에 마음이 편해진다. 내일은 낮일도 찾아보자, 과외나 한번 알아보자, 내일은 밥을 한 끼만 먹자, 내일은 담배를 사지 말자, 이번 달에는 쓸데없이 술을 먹지 말자 따위의 결심을 하고 나서야, 또 한번 마음이 편해진다.

돈이 없어서 고생하고 있다고 한탄하는 나에게 "아껴써, 아껴쓰면 되잖아." 라고 아주 쉬쉬하게 말했던 친구의 눈동자가 꿈에 나와서 잠을 깬다. "아낄 돈이 있어야 아끼지" 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래, 그러게" 라고 말 한 것이 너무 억울해서 그 친구의 눈동자를 쳐다보았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 눈동자와 부름받은 내 눈동자가 겹치면서, 슬퍼진다. 가난한 사람은 배고픈 만큼 독해지고 억세져야 한다는 세상의 규칙에 어쩔 수 없이 승복하고 있는 것 같아서, 혼자서만 악에 받쳐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여유를 잃어가는 것 같아서 슬퍼진다.

돈이 틀 무렵 핸드폰을 꺼내어 들고, 번호 한 개를 외운다. 몇 번을 되뇌이다가 뺨을 들어 손바닥에 친다. 350원중 150원을 꺼내서 쥐고, 동네 슈퍼앞 공중전화로 갈 준비를 한다. 세상에 제일 떨리는 순간이다. "야 배고파 밥 사줘" 라고 쿨하게 말할지, 아니면 "월급날이 내일 모레인데 다 썼네. 월급 타면 갚을게 밥 좀 사주라". 라고 구구절절이 설명할지 따위의 고민에 애써 뻘뻘해지는 것이 생존이다.

어떻게든 먹고 살게 되어 있다.

아침밥은 해결했다. 친구에게 지어줄 아릇한 표정 한가지만 연습해가면, 그리저럭 편함을 갖는다. 아침, 그리고 타이밍을 봐서 한 번 더 얘기해줘야한다. "배고파서 그랬어." ●

by 배고프니스트, 나누기

영화랑 상관없는 밥 보기

어딜가나 밥은 나온다. 꼭 밥을 소재로 하지 않는 영화더라도 잔잔하다. 시대물이어도, 현대극이어도, SF판타지 미래시대여도, 땅굴에서도, 우주에서도, 비행기에서도, 밥은 나온다. 그리고 밥은 언제나 수북히 무언가를 담고 있다.

밥은 대체 뭐가요? 밥을 선택하기 위한 멀고 먼 여정



●● 영화 <나는 차려더인걸>

부모님은 아직 스스로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자각도 못하는 말을 동성애자 치료 센터에 보내고 싶어 한다.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딸에게 납득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던 그들은 결국 외치고 만다. “우리에게 두부를 먹어보라고 권했잖니!” 세상에 밥은 그냥 밥이 아니었던 거다. 두부 하나 먹으려고 해도 온갖 편견과 억압 속에서 이겨내 열어야 하는 것이다.

그 농의, 망할 농의 밥 만들기



●● 영화 <스트로베리 쇼트 케이크>

귀여운 도시락을 해인에게 ‘수줍게’ 내미는 여자. 마냥 귀엽고, 마냥 달콤한가? 밥 만들기를 우습게 보지 마라. 저 달콤한 환상 뒤에 있는 초토화된 부엌. 그 도시락을 만들기 위해 들어간 노동력은 더 이상 그 환상 뒤에 숨고 있지만은 않으리.

●● 영화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

그리고 더 이상 그 노동력이 누군가를 위한 의무로 작용하지 않는 세상을 꿈꾼다. 즐겁게 요리하는 세상. 요리가 놀이가 되어버린, 그녀들의 세상.

食口, 먹는 입들. 밥먹기와 관계



●● 영화 <스트로베리 쇼트 케이크>

이러저러, 투닥투닥하다가 결국 바닷가에 같이 온 두 사람. 서로의 상처를 내려놓고, 석양 진 바다를 바라보며, 그들이 미소 짓게 만든 것은. 바로 딸기 케익 두 조각. 함께 먹어주는 사람은 서로의 상처도 보듬어준다는 사실.

밥, 때론 배부르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니다



●● 영화 <스트로베리 쇼트 케이크>

아키요는 일이 풀리지 않으면 음식들을 주르륵 늘어놓고 먹는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전부 토해버린다. 아키요에게 밥은 밥이 아니라, 먹으면 실을 찌우는 무언가가 되었다. 마른 몸매, 마른 몸매, 마른 몸매를 외치는 이 사회는 밥도 제 노릇을 못하게 한다. ●

by 밥먹는 상어

여성주의자가 등록금을 이야기한다는 것



개 나리가 필 즈음 교육투쟁의 기간이다. 운동권 총학이건, 비권 총학이건, 하물며 이도 저도 아니라는 학생권 총학이건 치솟는 등록금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인터넷 기사를 통해 등록금 연 천만원이라는 말이 포털 사이트 메인에 떠날 날이 없으며, 학생회에서 뭐 하는지에 별 관심이 없던 학생들도 아침마다 앵기는 유인물에, 중도 앞 촛불문화제 홍보에, 커뮤니티 사이트에 쏟아지는 웹자보에 슬쩍 눈길을 두게 되었다.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촛불 문화제 행사 당일에는 촛불을 뒤집어 쓴 사람이 백양로를 누비기도, 물통선을 던지기도, FREE TIBET과 여학생교육권을 끄적인 포스터 사이사이로 사람들이 드러눕기도 했다. 등록금 8.9%의 인상률을 '부수자'던 기왓장 격파행사에서 구호를 외치라는 채근에 나는 '가부장제 철폐'를 외칠 수밖에 없었다. 그건 내가 행사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도, 여성문제 외에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갈대없는 풀메미이기 때문도 아니다. 권력을 휘두르는 연세재단에 저항하는 목소리로, 여성주의자의 관점으로, 등록금 인상을 비롯한 학교 문제들을 비판해야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차별하는 배치고사에 반대하여 3주에 걸쳐 학부대학 부학장과 면담을 했지만 매번 하는 소리는 별반 다르지 않았다. 확대간부수련회를 다녀오는 길에 확대운영위원들과 함께 밀고 들어간 학부대학 사무실 회의실에 처음으로 학부대학 학장이 얼굴을 보였다. 그 때까지의 학부대학 입장이 그의 한 마디에 간단히 뒤집어졌다. 옆에 앉아 추임새를 넣

던 부학장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결정권자에게 보고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을 눈앞에서 목도한 학생들은 좌절하고 분노했다.

총장이 바뀌더니 여학생처를 없애고, 성폭력 상담실을 리더십개발원 하부기관으로 전락시키는 조직개편을 하겠다고 우겼다. 학생처에서 반대하고 여학생처에서 반대하고 젠더연구소, 여교수진, 총여학생회가 반대했는데도 총장과 기획실장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다. 결국 조직개편이 물 건너간 것은 여러 사정으로 인해 이사진이 모아질 않아 이사회가 결렬되었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한달, 한학기, 일년을 내다보고 준비하던 여학생처/성폭력 상담실 사수 투쟁이 이사회와 방만함 덕분에 그저 그런 해프닝으로 끝났다.

이 두 사건에는 같은 맥락이 있다. 이것이야말로 식민 상태가 아닌가? 제국이 식민지를 괴롭힐 때에 식민지와 제국의 관계는, 제국이 괴롭히고 식민지가 반응하고 대응하고 대처하고 저항하는 것이란다. 학생들이 더 공부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가 상대평가를 늘리고, 재수강 제한을 기획했을 때에 학생들은 두려워하지만 그냥 받아들이거나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그것에 동조하기도 했다. 학교 재단에 돈을 더 많이 쌓기 위해 대형 강의를 늘리고, 등록금을 마구 올렸을 때에, 학생들은 이만명 중 이천명씩 모아 총회를 하고, 결정권자인 총장이 있는 건물에까지 가 항의했다. 그러나 학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건 안 되니까 이거나 먹고 떨어지자?'라며 선심 쓰듯 요구안을 꺾어내고, 그나마 약속한 것들도 다 지키지 않았다. 제국도 이런 제국이 없다. 권력도 이런 권력이 없다.

학교 재단을 만드는 것은 '돈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은 돈을 벌려는 목적이 아닐 때에만 합법이다. 그런데 돈을 벌 권 이사회가 학교 안에서 가지는 권력은 말 그대로 무소불위다. 총장을 고르는 일부터, 교수임용이나 학교 방향성에 대해서도 입김이 후임지근하다. 대외적인 인지도도 있는 학교이기에,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학교이기에, 그 권력은 더욱더 막강하다. '등록금 오르는 것이 싫으면 점수 낮은 학교 가서 장학금 받으라'는 말이 학교 관계자의 입에서 나온다. 돈이 있으면, 송도에 캠퍼스도 짓고, 연세 이름으로 다른 수익사업도 만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진다.

1) 2004년 대대적인 교육투쟁으로 총장 선거에 학생 참여 보장과 성폭력 상담실 독립 등의 요구안을 학교 측과 협상하였으나, 학교 측의 의도적인 태만으로 위의 사항들은 전혀 실현되지 않았다.

2) 유명 교수를 스카우트하거나 우리가 쓰는 건물을 짓는데도 쓴다고 생각하는가? 보통 그런 연세 재단 돈이 아니라 우리 등록금으로 쓴다.

심지어 연세의 이름을 붙여내면 더 돈이 잘 벌린다. 돈이 많으면 좋다는 것을 아니, 자꾸자꾸 돈을 모은다. 연초 예산은 부풀려 잡아 등록금을 올리고, 쓰고 남은 돈은 '적립금'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쌓아둔다. '좋은 데 쓰라고' 여기저기서 주는 기부금도 이리저리 핑계를 대며 쌓아둔다. 언제 크게 한탕 쓰려고 그러나? 사실 왜 그 많은 돈을 쌓는 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 돈이 많이 쌓여있을 수록 좋은 학교란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다.

요즘 만화 '사립정글고등학교'의 실제 모델이라는 '진성고등학교'를 폭로하는 UCC가 인터넷을 강타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억압적인 환경에 분노하고 학생들의 저항하는 움직임에 지지의 목소리를 보냈다. 그런데 연세대학교와 진성고가 다른 것이 뭔가? 학교라는 권력으로 학생들의 행동을 일련의 방향성을 가지고 통제하는 것, 학벌 사회에서 엄청난 권위를 가지는 학교의 이름을 무기로, 차마 떠날 수 없는 학생들에게 '싫으면 나가라'고 하는 것, 학교 각각의 기구에 '자기 사람'을 심어두고 학사행정과 학교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것. 그들이 권력을 휘두르는 행태는 다르지 않다.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라면, 왜 학생들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는가? 앞의 문장이 너무 식상해서 사립학교가 기업업을 인정하고 가자면, 왜 소비자보호원은 학교의 소비자인 학생들을 보호하지 않는가? 왜 교육을 제공하는 자와 돈을 내고 공급받는 자 사이의 현저히 불평등한 권력관계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는가? 왜 삼년간 100만원이 혹은 150만원이 오르는 대학 등록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참묵하는가? 대학을 나와야 취직을 할 수 있는 사회인 한국 사회에서 '대학은 선택사항'이라고 말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다. 등록금 인상에 대한 특별법이 나 학교 안의 결정권에 대한 법은 끊임없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지당한다. 왜 대학은 법망, 정제, 국가의 비호를 받으며 그 안의 비민주성에 대해 항구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되었는가?

마치 돈을 가진 자들이 자발적으로 법을 제정하여 '새금을 낼 수 있는 자'들에게만 참정권을 주었던 근대법 제정 초기의 논리가 대학에 적용되고 있는 듯하다. 학벌 사회이기에 대학을 나와야 권위가 생기는데, 대학을 다니려면 등록금을 낼 수 있어야 하고, 하다못해 학자금대출 이자라도 밀리지 않고 낼 수 있어야 한다³⁾.

그러니 '알바를 하느라 학교에 다니는 것 같지 않다'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수많은 과제와 적은 시간에 학습하도록 종용되는 많은 공부량, 그것을 잘 수행했는가라는 획일적인 기준으로 많은 학생들을 일률적이고 수치화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 신자유주의 학사행정에서, 그들은 좋은 학점을 받기도 힘들다⁴⁾. 돈이 있어야 권력을 획득할 가



능성이 생기고, 돈이 있어야 권력을 포섭할 수 있고, 그것 자체가 권력이 되고, 그 권력을 가진 것이 다시 돈으로 돌아온다. 이 권력구조 한 가운데에 돈이 있는 것이다.

거기에 질리지도 않게 반복되는 역사를 자랑하는 가부장성은 잊지 않고 결합한다. 이 사회의 이성애적인 가치와 '주체'로서의 남성성은 권위를 가지고 그 외의 것을 배제한다. 권력으로 치환될 수 있는 어떠한 공간에도 그 가치는 통용되기 때문에 가부장이 아닌 자는 자원(돈)에 접근하기 힘들다. 자연스럽게 전체 여성은 가난해지거나 자원을 가진 이성애적 관계의 상대방에 의존한다. 이 시대에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여성 리더'는 가부장의 권위에 기대어 '내조를 잘 했'거나 남성중심의 사회에 편입하여 '명예남성'이기가 쉽다. 여성의 빈곤화를 넘어 빈곤의 여성화가 진행된다. '정상인간'만 돈을 버는 이 구조에서 실존하는 그 정체성을 부정할 수 없는 사회적 타자가, 영향력 있는 발언권과 사회에 참여할 권리를 잃는 과정은 서로가 서로를 복돋우며 더더욱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

'가부장제를 철폐' 하자는 것은 평등한 관계맺음에 대한 염원이다. '돈', 혹은 '학벌', 혹은 '정상성'의 권위, 그리고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주문이다. 권력이 없는 학생들이 원하는 학습, 교수, 교육환경을 요구하고, 그 요구가 반영하여 구성되는 학교라는 공간을 만들기 위함이다. 학교라고 이 사회의 가부장제에서 한 치도 벗어날 것 없지만, 그나마 학교는 '비영리'라는 딱지라도 붙이고 있고, '교육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기에 일단 매달려 보는 것이다. '학교, 너마저도!'라고 외치는 것이다. 하다못해 '명문사학'이라며 학벌을 내세우며 명예를 들먹이며 재단의 돈을 무기삼아 국회를 포섭하고 기업과 합작하여 '학문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도 걸고넘어지는 것이다.

나에게 구호를 외치라던 그 대표자는 '아...등록금 8.9% 부수기 행사에서 가부장제 철폐를 외치셨는데요... 참... 꼭 들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라며 말을 흐렸다. 그 둘이 분리된 것으로 보이는가? 나는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

by 풀페미 맞긴 맞아요, 자몽

3) 학자금 대출 이자를 일리면 다음 학기에는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4) 연세대학교 교육문제 소관사무에 한 학생이 남긴 글.

5) 물론, 개헌에서 온 난 케이스나 역경을 딛고 성공한 케이스가 뉴스를 장식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5000만명의 인구 중 한 명에게 일어난 특별한 사건이기 때문에 뉴스에 나는 것이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뉴스에 나지 않는다. '성공신화'는 그 성공이 특수한 일일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를 은폐하고 중심적인 가치를 획득하지 못하는 것을 타자 개인의 잘못으로 돌림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기 때문이다.

나는 페미니스트이다

도 대체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 것인가? 아무리 논리적인 언어로 설명을 한다고 해도 그들에게는 우리가 권력 다름에 이끌려 난 운동권이거나 신경질적이고 전투적인 페미니스트로 비춰질 뿐이다. 오히려 아무 내용이 없으면서도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으로 어눌하고 작하게 말하는 그들이 훨씬 더 사람들에게 어필한다는 인상을 받았다. 만약 나라면 어떤 식으로 얘기했을까? 어쩌면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것은 때로 논리가 아닐지도 모른다. 말하는 방식 자체에도 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1997. 4. X _ 페미니스트라는 낙인에 관하여

선거운동을 지키지 않아 후보들이 자격을 박탈당하면서 보궐 선거는 아이없이 무산되었고, 반대표 운동도 끝났다. 일은 것도 많고 얻은 것도 많았다. 같은 생각을 하는 새로운 사람들을 알게 되고 막 걸음마 단계인 여성 자치 연합의 내부 결속력이 강해진 반면, 여성 자치 연합에 대한 일반 학우들의 접근은 현저히 떨어졌다고 해야 할까? 이제 여성 자치 연합이 여성 문제를 고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 있는 느슨한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듯하다.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성 자치 연합은 강고한 페미니스트 조직으로 사람들에게 부각되었고, 그 안에 있는 나 역시 그들 마음대로 찍어버린 페미니스트라는 낙인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얼마나 많은 선배들이 후배를 걱정한다는 이름 아래 나에게 태러를 가했는지? 여성 운동이 다 헛 일이라는 등,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등, 중립적인 척 가장하며 혼수 두기, 나는 아직도 내가 딱히 운동을 한다거나 페미니스트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그러한 말들은 나에게서 너무 멀리 있고 그러한 말로 나를 규정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난 다만 나에게 중요한 문제들을 고민하고 있었을 뿐인데, 그것을 드러냄으로써 너무나 많은 기대를 받거나 너무 쉽게 공격 대상이 되어 버린다. 그러한 규정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빨리 역량이 생겼으면 좋겠다. 나는 여성 자치 연합이 여성 문제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열린 공간이기를 바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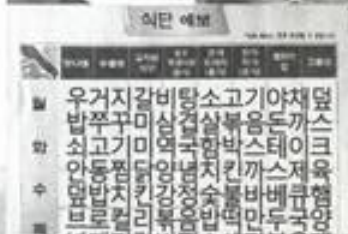
채식주의자는 먹을 것이 없어

일단 한 번 규정된 것은 내부의 노력만으로는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 야상에 차서 시작한 우리의 시도가 처음부터 방향이 틀어져 버린 기분이다. 약간 기운이 빠진다. 만약 총여학생회 보궐 선거가 없었고, 반대표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상황이 더 나았을까?

1997. 4. X

대동계 때 순결 서약식을 한다는 풍문이 떠돌고 있다. 정말 생각들이 있는 건가? 정말로 잠시도 쉴 틈을 주지 않는군. 기세 좋게 시작한 여성 자치 연합이지만 끝없이 터지는 외부 사건들에 대응하느라 애초에 우리가 담아내려고 했던 내용들은 풀어낼 새도 없다. 기본적으로 총여학생회가 받고 있던 혜택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것들을 지켜 내고자 하는 노력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다. 여성 자치 연합이 총여학생회실을 사용하거나 기존에 총여학생회에 편성된 예산을 받기 위한 노력들이 안타깝다. 난관이 너무 많다. ●

10년 전 연인들의 (나는 페미니스트이다) 중



새로 취임한 연세대, 고려대 두 총장님

어.쩜.그리도...!

그 이름도 찬란한 조선일보 4월 1일자 신문에 이번에 나란히 새로 취임한 연세대와 고려대 두 학교의 총장 인터뷰가 실렸더라. 대학의 당면 과제, 교수 경쟁력, 학생 선발 문제, 등록금에 관해 조선일보가 묻고 두 총장이 대답을 하는 형식이었다. 그런데 이 대답이 참으로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 역시 한국 사회를 쥐고 흔드는 두 사립대학이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갑갑함으로 벅차올랐다. 고대 이기수 총장이야 출교 학생들에게 복학시켜주겠다는 '관대하고 포용력 있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에 힘썼으나 학생들에 대한 자퇴 강요나 사과문 작성으로 그 본 모습이 드러난 바가 있으니 연세의 신임 총장의 발언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자.

총장 인터뷰에서 그들의 솔직함은 상상 너머이다. 고려대에 대한 부러운 점의 질문에 "고대 교우회가 어떤지 잘 알지 않나. 고대는 바닥에서부터 강한 응집력을 갖고 있다. 그러니 서울시장이 연이어 나오고 대통령이 당선되는 거다. 그런 면이 너무 부러워 우리 신입생들을 전부 '해병대 극기훈련'에 보내볼까도 생각해봤다(웃음)."고 답했다. 이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지연, 학연주의에 대한 강한 부러움을 저토록 진솔히 내비치는 것이다! 게다가 신입생을 해병대 극기훈련에 보낸다는 기발한 발상을 농담처럼 이야기하면서 군대 문화로 표상되는 파시즘과 남성중심성에 대한 성찰없음을 고백하고 있다.

또한 '비싼' 등록금 (강조 처리는 조선일보의 우아한 센스)에 대해 우리의 총장님은 "국내 대학 등록금은 1인당 GDP의 50%에 못 미친다. 선진국은 70~100%에 달한다. 연대는 학교 재정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1 수준이다. 나머지는 교수들이 외부에서 받아오는 연구비, 기부금, 법인전입금, 이자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대학 실정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시민단체와 야당까지 가세해 등록금을 사회문제로 확산하는 데는 불만이 있다."이라고 대답하면서 돈 없는 이들은 대학 언저리에도 갈 수 없는 소위 선진국의 현실에 한국도 어서 빨리 발맞춰 가야 한다는 찬란한 비전을 보였다. 또한 대학 실정이 그렇게 어렵다면서도 국가에게 교육을 책임지라 말하는 이들을 비난하는,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 대학은 교육기관이 아니라 사유 재산인 것이다!

또한 강의평가가 공개되었을 때 학생들에 의해 학문이 좌지우지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심지어 교수를 발가벗긴다고 표현하였다! 강의평가를 제대로 하려는 의지가 있는 듯 하다. 그것이 비공개인 것은 스승과 제자 사이에는 비판과 논쟁도 건방지다는 강한 윤리의식이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대학이 먹고 사는 것은 브랜드 가치밖에 없기 때문에 교육의 실내용, 교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가볍게 무시하고 어떻게 하면 학벌체제를 더욱 공고히 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사교육을 많이 받은 우수하고 돈 많은 학생을 유치할까에 대해 날밤을 새워가며 고민하는 우리 총장님, 학벌 권력이 정치 실권자를 세우는 것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너무도 섭섭해 하시는 우리 총장님, 학교는 학생의 것이라는 헛소리는 과감히 씌어버리고 역시 학교는 재단의 것이라는 굳은 신념을 굽히지 않는 우리 총장님, 우리는 영원한 맞수라며 고대 총장과 굳게 손잡고 신입생 해병대 보내야겠다며 허허허 웃으시는 호탕한 우리 총장님, 9% 인상할래, 10% 인상할래 별 의미도 없으면서 학생들한테 물어보는 노력을 기울이신 친절하고 배려심 가득한 우리 총장님. 어쩜 그리도... ●



학교 정문 앞에서 알바 중이던 자몽에게 알바동무가 생겼다. 알바동무는 정문에서 공학원으로, 공학원에서 학관까지 따라와서 총여섯 난로 앞에서 잠들었다. 알바동무는 친구가 되었다.

친구는 착하고 순하고 말도 잘 듣는 개다운 개다. 그리고 사랑받고 자랐다가 길 잃은 개답게 사람들 움직임에 예민하고, 사랑받는데 익숙하다. 친구는 사료도 잘 먹고, 볼일은 화장실에서 봐야 한다는 것도 알고, 내가 마련해준 자리가 자기 몫이라는 것도 안다. 그리고 이제 좀 집다운 곳에 와서인지, 글을 쓰고 있는 와중에도 잘 자고 있다.

친구는 눈과 코까지의 주둥이 길이로 인해 마르티즈다, 아니다 의견이 분분했지만, 결국 수의사 아저씨에 의해 마르티즈 믹스견으로 판명났다. 나이는 4~5살, 미용한지는 2주 가량 자났고, 피부병은 '아이구, 심하네.'

나누기는 친구가 말을 했으면 좋겠다고 한다. 개도 사고하고 인간처럼 이론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양물이와 같이 앉아서, 길바닥에서 보낸 인생 이야기를 나누며, 어쩌면 개의 해방에 대해 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친구는 자몽이 읽어준 한채윤의 이성애중심주의에 대한 분석 글을 귀를 쫑긋 세우며 들을 정도로 톰토하기 때문이다. 개의 언어로 해독해준다면, 줘디스 버틀러도 이해할지 모른다. 아별 댄 서로 언어가 다르다는 것이 슬프다.

하지만 서로 다른 시각의 경험으로 몇 가지 같은 가정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전 동거인을 찾으면 좋겠다거나, 피부병 때문에 버림받았을지도 모른다거나, 역시 동물 해방 세상이 필요하더라.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되는 것일까? '주인 없는 개'를 화물이 대상으로 혹은 언제든 잡아먹을 수 있는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 문제시되지 않는 세상, 동거인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길거리로 내몰려야 하는 불안한 생활 조건들은 변화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지금의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라는 이유로, 그저 좀 더 자상하고 오랫동안 사랑해줄 수 있는 주인을 찾아주고, 나는 모든 고안들을 무마시키면 되는 것일까?

상어의 애완동물* 해방론

* 이 글은 거대한 이론은 아니다. 이론이라고 하기에는 나의 지식은 한없이 부족하며, 글은 대놓고 그 빈약함을 드러낼 것이다. 이것이 동물 해방론이 아니라 애완동물 해방론이라는 명칭으로 시작하는 것 역시, 나의 동물과의 관계라는 것이 우리집 고양이 정도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릴게 동물을 야생동물, 애완동물, 가족으로 나눈다고 하더라도 난 가족은 키워본 적도 없으며, 야생동물의 상황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조차 못한다. 그래서 그저 귀여워서 아무 생각 없이 돈을 주고 새끼 고양이를 '사' 왔으며, 통통한 생체제로서 보다는 내가 '키우고' '사랑하는' 대상으로서 고양이를 바라보아왔던 나날들에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리고 반려동물이라는 명칭이 생겨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사랑하고 기리고 노는 동물로만 바라보는 지금 사회의 시각에서는 애원동물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더욱 명확한 듯 하여, 이 글에서는 비정지적이고 동물 억압적인 애완동물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 글을 읽으면서 당신의 애완동물을, 혹은 주위의 애완동물을 당신도 다시 한번 바라봐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글을 쓰기 전에, 난 지금 내가 너무나 부끄럽다는 걸 먼저 고백하고 싶다. 난 이 글에서 내가 하는 생각이나 주장에 대해서 지금 당장 눈곱만치밖에 지킬 수 없을 것이다. 아니면 내가 주장하는 내용과 정반대로 행동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절대 어느 철학자가 말한 것처럼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표지판을 해주었으면 되겠지, 굳이 그 길을 같이 갈 필요가 있는가?"라고 반문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글을 쓰고 싶어 했던 것은 인간이 아닌 생명체에 대해서 안중에도 두지 않으면서 나는 어떻게 편편하게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라는 나의 죄책감을 아주 조금이라도 덜고 싶은 이기심 때문이다.

내가 동물에 대한 책임감을 인지한 이후, 처음으로 관계를 맺은 동물은 현재 부모님의 집에 살고 있는 고양이다. 자취를 시작한 현재, 고양이는 부모님의 집에 남겨 놓았다. 고양이가 남기를 택할 수도 있지 않은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결국 내가 선택하는 대로 나의 고양이는 거처를 옮겼어야 했기에, 결국 나의 고양이는 대상으로 밖에 지칭될 수 없다.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온갖 종류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난 언제나 애원 고양이가 마음에 걸린다. 웬지, "쫓, 난 결국 사람의 문제에만 관심이 있는 거지?"라고 말하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 더 이상, 인간의 권리를 이야기하면서도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 개에

게, 맛있겠다, 라는 한마디를 아무렇지 않게 내뱉거나, 비둘기들이 돌진하는 꼬맹이에게 위험을 느껴 날아가는 모습에서 동심의 천진난만함을 포착해내려는 사진들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언제가 되었던 앞으로 가야 할 길이라면 추상적인 표지판의 가능성을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첫 번째 고민, 밥의 선택

나는 밥을 만들어 먹기 위한 모든 과정에서 행복을 느끼는 인간이다. 메뉴를 정하고, 장을 보고, 밥을 만들고, 그리고 먹기까지의 그 과정이 나에게겐 평화로 안식이다. 나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의식주라고 하지 않던가. 의(衣)야 대부분의 동물들은 털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제쳐둔다고 하더라도, 식주(食住)는 동물들에게도 생존을 위해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내가 애완동물과 제대로 소통할 언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소통 방식도 가지고 있지 못하기에 무엇을 좋아하는지, 오늘은 무엇을 얼만큼 언제 먹고 싶은지 알 길이 없다. 물론 가끔 사료를 바꿨을 때, 먹는 양이 눈에 띄게 줄었다거나, 사료를 쥐도 캔을 달라고 운다던가 하는 정도로 밥을 바꿔줄 뿐이다. 어느 정도 소통이 되었다 한들, 결국 애완동물의 밥에 대한 결정권은 모두 내가 가지고 있는 셈이다. 내가 결정하지 않기 위해서는 고양이가 선택해야 한다.

사회가 변화하면서, 사람은 음식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시작했고, 대량의 음식을 장기 보관하기 위해서 보관 방법을 만들어냈다. 공기와와의 접촉을 차단시키거나, 인위적으로 공기를 차갑게 만든 냉장고에 보관한다거나. 그리고 이런 두 발로 움직이는 사람이 다룰 수 있게끔 고안되었



을 뿐, 네 발로 움직이는 고양이가 다룰 수는 없는 물건들이다. 결국 사람의 음식으로는 고양이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없다. 결국, 고양이의 음식 선택으로 돌아가려면, 인간의 공간이 아닌 곳으로 가야 한다.

고양이들은 육식 동물로 새나 쥐, 곤충 등을 필요할 때마다 잡아서 음식을 섭취한다. 하지만 스스로 음식을 충당해보지 못한 애완동물에게는 그것이 '먹을 것'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나의 애완동물처럼 그저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지고 놀기 위해서 필요 없는 살상만 저지르기도 한다. 인간 중심으로 구성된 식품 섭취 및 저장 방법 속에서는 더 이상 고양이 스스로 밥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성도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사람의 집이 아닌 바깥 공간에서도 오래 생활을 하다보면, 스스로 음식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밖으로 나간 고양이는 교통사고나 어떤 인간들의 악의적 행위에 의해 위험당할 수 있다. 다시 인간의 집으로 찾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 이것은 단순히 고양이와 오래오래 함께 살아가고 싶다는 나의 이기적 욕구의 문제가 아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집 고양이는 무엇을 잡아서 먹는다는 것의 개념이 없다. 그것을 배워본 적이 없는 것이다. 고양이가 바깥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 혹은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무턱대고 내놓는 것은 애완동물 해방이 아니다. 그것은 애완동물 유기에 가깝다.

그렇다면 어쨌든 인간의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사료들을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료에서 인간이 그들의 애완동물을 어떤 식으로 사고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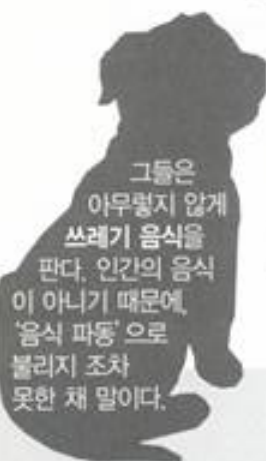
만두 파동, 새우깡 파동, 참치캔 파동, 유전자 조작 콩 파동, 인간의 음식에 대해서도 믿을 수 없는 음식 불신 시대가 열리고 있다. 사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최근에 사료를

미리 더 사놓지 않은 상태에서, 사료가 바닥을 드러낸 적이 있다. 그래서 급히 근처 대형 마트로 가서 고양이 사료를 샀다. 보통 대형 마트에서는 유기농 혹은 1등급 사료들은 커녕, 보통 먹이는 사료들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그래도 한국 유명 회사에서 나온 사료가 있길래 집어 들었다. 그리고 그 사료를 먹은 애완 고양이는 일주일 동안 구토를 계속했다. 사료를 바꾸자 괜찮아졌다는 엄마의 연락을 듣고, 인터넷으로 그 사료에 대해 검색해보자, 그 사료에 대한 비난은 넘쳐나고 있었다. 사실 음식에 대해서는 직접 먹어보지 않는 한, 제대로 알기 어렵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맛이 어떤지, 내가 먹어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고양이에게 어떤 맛으로 다가갈지는 짐작조차 못한다. 결국 이러한 핑계로 나는 아무렇지 않게 사료를 사고,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쓰레기 음식을 판다. 인간의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음식 파동'으로 불리지조차 못한 채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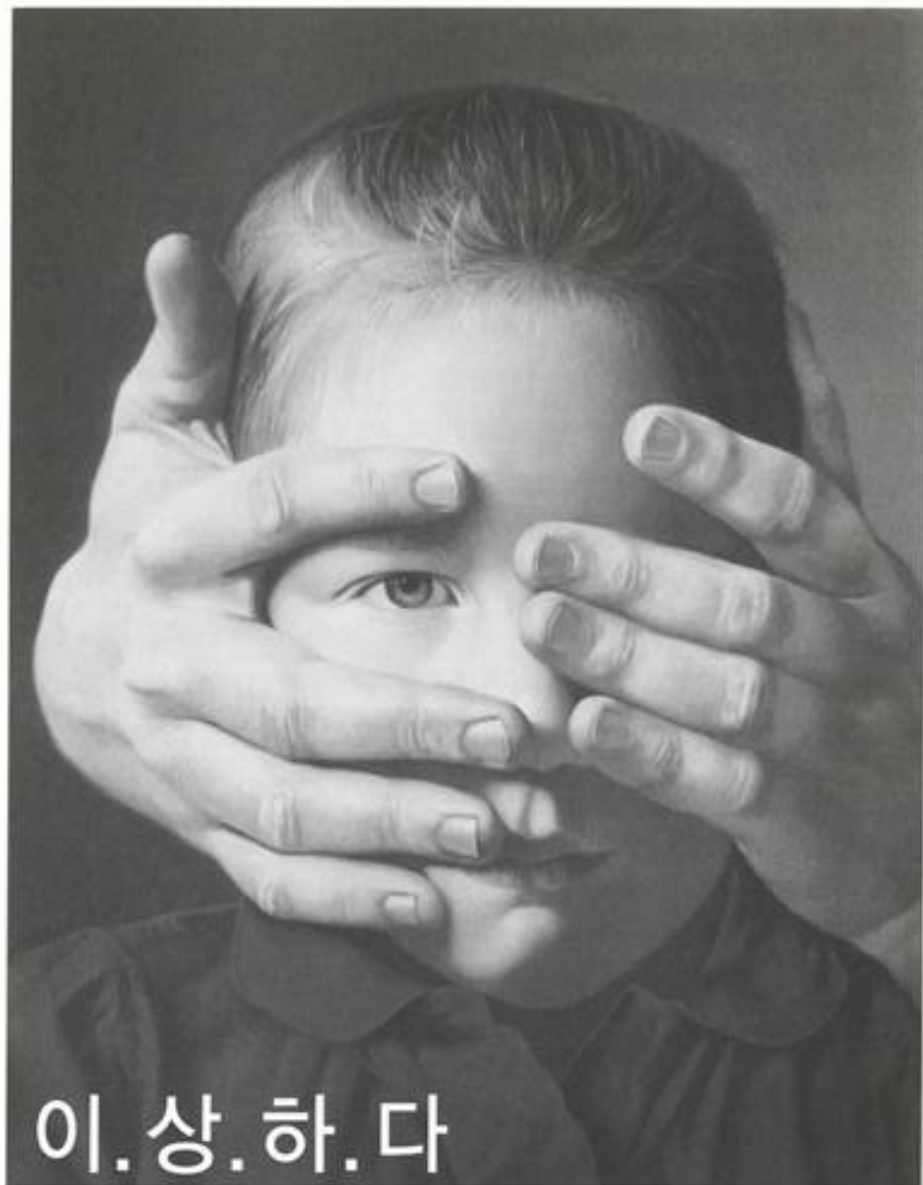


물론 고양이는 인간과 섭취하는 음식이 다르고, 어떤 음식 같은 경우 생명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인간의 음식과는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사료'라는 필요한 영양요소만 전부 집어넣은 이상한 덩어리들이어야 하는가? 사람에게 영양 요소를 집어넣은 밥 혹은 빵을 주면, 음식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끝나야 하는가? 물론, 대안적인 방식으로 애완동물에게 생식을 주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백도날드' 섭취량이 많은 것처럼, 시간 없고 돈이 없다면 고양이에게 사료를 주는 것이 지금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나은 선택 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

적은 비용과 큰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회에서는, 그리고 인간과 동물의 간극이 권력적이고 억압적이고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 되어버린 사회에서는 결국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변명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쓰레기 음식을 판다. 인간의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음식 파동'으로 불리지조차 못한 채 말이다.



이.상.하.다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이 어떤 공간을 떠올리게 한다. 그것은 그동안이나 잊고 살만큼 잊고 싶었던 기억이기도 하고, 이렇게 퍼뜩 떠오를 만큼 인상깊은 기억이기도 하다. 몇 년이나 지난 기억이 감각을 타고 올라오는 그 순간에 대한 이야기다.

산부인과다. 빠른 말씨의 의사가 빠른 말씨로 “오줌 마려우면 좋은데 마려워요?”라고 묻고, 빠른 말씨로 “잘 됐네, 저기 누워요.”라고 지시하고, “오줌 마려워서 잘 보이네, 이것 봐요”라고 가리켰다. 둥그런 플라스틱 재질의 무언가가 내 배 위에서 움직이고, 까만 화면에는 움틀거리는 바탕과 더 어두운 둥그란 구멍이 있었다. 의사의 손이 내 배를 난폭하게 뒤적이며 “이게 난소 쪽인데, 혹이 있지는 않고 내막이 두꺼워요. 뭐 약 먹을 정도는 아니고” 다시 뒤적이며 뒤집어 꼬집어보며 “그래 10mm 정도니까”.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웃겨서 견딜 수가 없었다. 언제나 두려움의 대상이던, 그래서 자위를 할 때에도 그 입구에 손가락을 닿기 두려웠던 내 자궁, 한 달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골렁한 피를 쏟아내던 내 자궁, 생물 시간에 배운 대로 위치와 크기만은 알고 있어서 아랫배가 오른쪽 왼쪽으로 쿵쿵 쑥살 때마다 ‘나팔관이 아파’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자궁. 그것이 내 눈에 훤히 보이고, 그것을 마구 만져대는 것이 너무 웃겼다.

그리고 그 의사가 마치 내 자궁을 자기 손 위에 올려놓은 것처럼 다루며 화면을 통해 나에게 확인하도록 했을 때에, 그것은 내가 모르는 어떤 다른 사물인 것 같았다. 벽이 10mm가 되면 안 되는데, 그만큼 두꺼워서 나의 ‘정상적’인 생리를 막는 괴상한 무언간데, 그게 내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내 것이 아닌 것처럼 파악하기도 힘든 무언가 말이다.

기억났다. 재수학원이다. 생리대를 바꾸러 가는 하얀 벽 사이에서 화장실에 들어갈 순서를 기다리며, 쾅그리며 부끄럽고 무섭다는 여자아이들 사이에서, 나는 공공연히 ‘수능이 끝나면 자궁을 들어내겠다’고 말했었다. 생리를 하는 것이 싫었다. (정도와 의미는 다르지만 지금도 생리하는 것은 괴롭다.) “여자들은 생리를 하는 만큼 한 달에 한 번은 능률이 떨어진다는 거잖아. 어떤 기업에서 좋아하겠어?”라는 교사의 말에 그때의 세계 인식과 감상으로선 반박할 수 없었고, 그래서 ‘능률이 떨어지는’ 인간이 되는 것이 억울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를 깔끔하게 없애고 ‘하자 없는’ 몸을 가지고 싶었다. ‘하자 없는’ 몸으로 만들고 싶었다. 생리 양이 많은 것도, 주기가 들쭉날쭉해서 예측할 수 없는 것도, 자주 새어나와서 옷에 묻지 않을까, 옷에 묻은 것을 누가 발견하지 않을까 신경을 쓰는 것도 나의 ‘하자’였다.

이성적인 인간은 과학적인 기계를 통해 몸의 기관을 관찰한다. 문제 있는 몸을 잘 고쳐내는 것은 자기 관리를 잘 하는 사람이라는 증거다. 현명한 사람은 탈선하려는 몸을 잘 막아낸다. 똑똑한 사람은 예방을 잘 하니까 아프지도 않고, 몸이 망가지는 기호도 가지지 않는다. 몸이 아프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몸에 좋은 것을 챙겨 먹지는 않더라도 몸에 나쁜 것을 멀리할 줄 아는 것이 건강한 현대인이다.

완벽한 인간이 되려면 나는 나와 자궁과 분리해야 한다. 내 몸은 아무래도 하나인 것 같은데 내 몸이 조각난 것 같다. 이상하다. ●

by 난 좀 울췌불췌, 자몽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하고,
분노할 힘조차 없이 지치고,
그런 트라우마를 만날 때가 있다.
하지만 그 트라우마는
때론 가끔 종종 자주 사라진다.
스스로에 의해 사라지기도 하고,
주위의 공감 없음에 의해
모습을 숨기고,
어딘가에 숨어서 나를 타락시킨다.
트라우마는 그 본질을 마주했을 때,
그것에 분노했을 때,
같은 상처가 아닌 변화의 힘이 된다.

오늘의 트라우마 :
마주보고, 분노하고, 변화하기

오늘의 트라우마



버스를 타고 과외를 하러 가면서, 토니 모리슨의 <Beloved>를 읽고 있었다. 남북전쟁이 한창인 그 시대에 갇혀있던 흑인 노예 여성들의 시각을 통해 그려지는 참혹함에 두려워하면서도, 외면하지도 못한 채 책을 붙들고 있었다. 책에 내 기운을 빼앗기고, 빼앗기고 지쳐서 고개를 왼쪽으로 돌렸을 때, 그것이 있었다.

거대하고 길쭉하기만 한 조형물. 그 옆에서 항성을 지르는 듯한 네다섯 명의 6·25 참전군인의 거대한 동상. 참혹함은 책이 아니라, 내 눈 앞에 나타났다. 토니 모리슨이 말하던 참혹함은 현재 진행형이며, 일상의 참혹함에 치를 떨던 나는 내 일상에서도 그것을 마주했다.



부끄러웠던 건, 태국 정부가 버마 난민들을 상대로 진행한 '인간 동물원'이 무엇이었던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는 것. 한번쯤 물어보지도 못하고 살 수 있었던 건지. 아니면 보고도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망각하고 살 수 있었던 건지.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인간 동물원'을 찾아보고, 북한판 '인간 동물원'에 대한 내용을 읽고 있는 나에게 쏟아진 홍수같은 정보들은, 탈북 실화를 다룬 영화 '크로싱'이 개봉한다는 것을 홍보하고 있는 조선일보, 영화 제작비의 절반 이상을 배우 김우중 막내 아들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산생 투자 배급사에서 투자했다는 사실, 그리고 북한판 '인간 동물원'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닐텐데, 정권이 바뀌어서야 '문제를 중히 다루겠다'는 인권위원장의 말을 씁쓸하게 곱씹은 누군가의 글.

난 인간이 서로를 인간으로, 같은 인간으로 대하지 않는 '인간 소외'의 문제가, 골통 보수가 스스로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김일성 체제를 영산하는 몇몇 민족주의자들의 눈가림으로 가려지는, 그런 공포스러운 사회에 살고 있구나.

그래, 난 잘 하고 있었다. 화내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기 저 여학생은 상대적으로 안전할 것이라는 편견이 뒤섞인 무슨 처장인지, 무슨 실장인지 하는 아저씨들의 보행에도 화내지 않고 '우쭈쭈쭈 그래쎄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라는 식으로 잘 대응하고 있었다. 이 교섭을 체결해야하는 당위성에 동의하고, 망기적대는 학교에 분노하는 이 상황에 동조하고 있었다. 덩치 큰 그 남성 활동가가 내 바로 옆에 서서 소리를 지르며 불편한 욕을 내뱉기 시작했을 때 난,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아무 행동도 할 수 없는, 잘 알고 있지만 익숙해지지 않는 공포의 한가운데 들어섰다. 그 욕설의, 그 호통의, 그 공격의 대상이 내가 아닌데도 내가 두드려 맞는 듯한 그 느낌. 폭력에 대한 공포가 만든 하얗게 질린 공간 한 가운데. 거대거대한 목소리가 더 거대해대해지고, 거대거대한 가부장이 밑에서부터 비집고 올라오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질린 채 그 사람이 토해내고 있는 말 덩어리의 내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머릿속으로 곱씹었다. 그 내용에 열심히 집중했다. 올라오려드는 그 무엇을 막아내도록 온 신경을 열심히 집중했다. ●





연애 뭐 별거 있겠나 남들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했는데 연애 뭐 별거 있고 남들 하는대로 하면 불편하고 불행하더라. 소통, 소통, 입에 붙이고 사는 여성주의자들이 입을 열었으니 여성주의적으로 소통하는 관계 좀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원시 모를 연애 -
치고 빠지기

금붕어동 ①

금붕어동???

'나는 키쿠라는 이름이 있는데 왜 사람들은 '토키와의 여자친구'라고 할까? 토키와가 금붕어라든 나는 금붕어 동인가?' 이런 생각을 해본 사람들 의외로 많을걸요. 누구 여자친구라는 이름으로 나간 자리에서 끊임없이 미소를 지어야만 하는 상황, 누구 애인이라는 명찰을 달고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하는 상황, 심지어는 '누구 선배의 여자'라는 이유로 다들 굽실거리는 이상하고 편안한 상황. 아구려.

그런데 구리다는 말만로는 이 부조리를 설명해낼 수도 방지할 수도 없어요. '금붕어 동'이라면 결국 밥 먹고 풀 먹고 해엄쳐 다른 이들과 관계맺음하는 것은 금붕어라는거죠. 금붕어가 없다면, 금붕어가 동과의 관계를 단절하면 그냥 금붕어 동은 물 위에 둥둥 부유하게 되는 겁니다. 금붕어가 다른 물고기들과의 관계를 단절해도 마찬가지죠.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냥 금붕어의 친구였을 뿐, 금붕어와의 관계맺음이나, 그것의 회복에만 관심이 있을 뿐, 금붕어 동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금붕어와 함께 만나는 사람들과도, 팔린 동으로서 말고, 주체적인 관계맺음을 만들여가기를 권장합니다. 그 금붕어가 자꾸 '동'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면 그것이 어떤 느낌인지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해 보고요. 하기 싫는데 강요하면 쟁판이라도 치고 싸우세요. 금붕어에 팔려 있을 때의 그 느낌이 아주 좋고 마음에 들어서 별로 거슬리지 않는다면 그냥 그걸 즐기세요. 그러나 그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건 금붕어의 권력이자, 금붕어 동들의 권력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한꺼번에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상처입지 말 것. ●

by 자몽

금붕어동 ②

나는 애인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나는 애인이 있어요.

일단 금붕어와 금붕어 동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 금붕어 동은 금붕어 전가? 금붕어가 썼으니까 금붕어 동은 금붕어 전가? 금붕어는 금붕어 동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그런데 금붕어 동은 금붕어를 어떻게 생각할까? 소유와 존재, 싸놓고 보면 이 두 단어의 의미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구분된다. 하지만 이 단어들을 일상으로 가져가고, 또 연애관계라는 것에 가져갔을 때 모호해지는 것이 사실이다. 연애가 무슨 노예제도의 2008년도 개정판도 아니고,

어떻게 애인을 '내 애인' 이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소유대명사를 붙여가며 이야기하는 건지 금붕어 동도 모를 일이다. 물론 이 시대의 구리다 구린 연애 각본 안에서는 서로를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트루 러브' 랍시고 칭송되지만, 세상에 사람이 사람을 가질 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상상은 시대를 풍미하고 있는 마초를 머릿속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우리는 애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애인이 있고,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너무도 쉽게 애인을 나로 인해 존재하는 타자로 규정짓는 것은 관계에 대한 불성찰이고, 나아가 관계 속의 사람들에 대한 폭력이다. 영화, 드라마, 열 동네 연애 이야기, 앞 동네 연애 이야기, 내 친구 연애 이야기, 세상 곳곳의 연애 이야기들은 여성은 남성에게 소속됨으로써 역할과 지위를 부여받는 것이라는 가부장제의 기획에 기대고 있다. 또한 연애 관계에서는 서로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그 둘 사이에서는 모든 것이 탈정치화 될 수 있다는 이성애중심주의와 성별이분법에 기대고 있다. 아무 생각도 안해 보고, 관계에 대해 고민도 안해 보고 이따위 것들에 기대어 상대방을 '나의 것'으로 착각하고, 억압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뻔짓이다.

환상속에서 허락이며, 애인이 금붕어 동인냥, 오로지 누군가를 통해서 만들어진 금붕어 동이냐 생각하는 것은 연애가 아니라, 말 그대로 배설이다. 꿈에서 깨고 제발 이제 내가 누구와 연애를 하고 있는지, 그 사람과 어떻게 관계 맺는 것이 행복한 것인지 고민했으면 좋겠다. 진짜 제발. ●

by 연애 좋아, 나누기



Q

저는 이제 약 페미니스트가 되려고 꿈틀꿈틀하고 있는 kk입니다.
요즘 저의 고민은 애인을 집에까지 데려다 주는 것이 옳은가? 예요 그 친구
가 좋아서, 함께 더 이야기하고 싶어서 집에 데려다 주는 것이라고 저 자신에
게도 주위 사람들에게도 설명하지만 연애관계에서 이성 간의 역할을 고정시
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괜히 잘못된 것 같고, 남들에게 말하기도 부끄럽고...
그래서 얼마 전엔 안 데려다 줬다고 시침 때다가 딱 걸린 적도 있어요 애인에게 사랑받고 싶
고, 정치적으로 올바르게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 지, 저에게 답을 주세요!

데려다주기 ①
언니들은 다 아는 밤길 이야기

나는 무서운 이야기를 무지 많이 알고 있어요. 예전엔 가장 무서운 이야기는 귀신이야기였는데 (지금
도 무섭지만) 어느 순간부터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드문드문 하게 되는 가장 무서운 이야기는 도시괴
담이 되어 버렸더라고요. 참 이상하죠, 분명 지역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고 서로가 같은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도 아닌데, 버스에서 어떤 할머니가 한 여대생을 납치하려고 시도했다거나 엘리베이터에
어떤 남자가 칼을 숨겨두고 뒀었다거나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대부분 여성들 사이에서 유명합니다.

귀가시간이 거의 대부분 늦은 밤인 저는, 신촌 거리의 술취한 사람들을 쫓고 가야 했던 그 집에 갈 때
도, 목련이 핀 연희동 그 골목가에 있던 집에 갈 때도, 시장 골목을 굽이굽이 들어가야 하는 그 집에
갈 때도 저는 오른손 둘째와 셋째 손가락 사이에 열쇠를 단단히 끼워 들고 갑니다. 왜냐구요? 여차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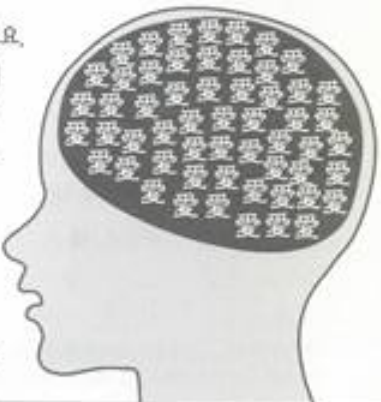
면 공격해야 하나까요, 집에 들어갈 때마다 부들부들 떨다가 현관문을 닫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나오는
한숨, 많은 분들이 그 기분에 공감하실거예요.
애인들이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면, 저는 항상 고민에 빠지곤 했어요. 귀찮지 않을까, 시간을 너
무 많이 뺏는 것은 아닐까, 나는 너무 수동적인 것은 아닐까, 이런 것들 말이에요. 실제로 여러 번 물
기도 했어요. "너는 나를 집 앞까지 계속 데려다 주는 것이 귀찮지 않아?" 거기에 "귀찮아."라고 대답
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뭐 계속 묻기는 했던 것 같아요.

여성들에게 밤길은 공포의 공간이죠. 나도 고즈넉한 밤길에서 쓸쓸한 가로등의 빛을 등 뒤로 받으며
시도 한 수 지어보고 싶고 노래도 부르고 싶고 좋아하는 음악의 볼륨을 크게 키워둔 이어폰을 껐보고
도 싶은데 실제로 가능하지가 않죠. 무섭다는 느낌부터 드는 데 그때 짓는 시는 서정시가 아니라 공
포시가 되지 않겠어요. 동네 아저씨가 담배 사러 가는 것만 봐도 "저 사람의 정체는 무엇인가?"란 문
장이 머릿속을 한 가득 메우는 판에 말이에요. 그래서 애인이 집까지 데려다주면 안심이 되어 기쁘기
는 했지만 내가 이 사람의 보호를 받는 대상이구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심란하기도
했었어요. 나는 내 자신조차 지킬 수 없는 존재가 되어 버렸으니까요.

그러나 그 공포를 굳이 숨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나의 밤길이 위험한 건 사실이니까요. 밤에
데려다주는 주체가 누구이냐에 따라 관계에서의 보호자와 보호대상이 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
각해요. 물론 나 혼자 생각한다고 해서 상대방도 그렇게 사고하는 것은 아니에요. 많은 애인들은 나
의 귀가시간을 통제하려고 하였고 그 이유로 오늘은 데려다 주는 사람인 '자신' 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거든요.

관계의 기본은 소통이니까,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나의 밤길은 공포스러우나 그것은 내가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여
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나를 향한 폭력이 너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애인을 데려다 준다고 해서, 혹은 그
반대라고 해서 내가 여성주의적인 인간이 아닌 것은 아닐까,
라는 절망에 빠지지는 않았으면 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각각의 사안에서 얼마나 적절하게 함께 소통해서 대처하느
냐, 끊임없이 고민하느냐 임을 잊지 마세요! ●

by 풀이니까 보노



대려다주기 ●

넌 왜 데려다주니?

저는 제 애인이 아닌 남자친구* 이야기를 좀 할게요. 그 친구와 저는 많이 소통하는 관계입니다. 그 친구도 나와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고, 나도 그 친구와 공감하는 것을 좋아하지요. 우리는 대화의 상대로서의 서로를 신뢰하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을 즐깁니다. 우리는 각자 바쁘기 때문에 서로의 집까지의 거리가 지하철 역 한 정거장밖에 되지 않지만 잘 만나지 못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보고 싶어진다면 밤늦게 불러내어 익숙한 거리에 앉아 수다를 떨거나, 두 시간이고 세 시간이고 이야기가 이어지곤 하지요.

저는 꼭 그 애인이 아닌 남자친구를 집에까지 데려다 줍니다. 우리는 언제나 더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데, 우리 집에서는 제 귀가시간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는 반면에, 그 친구의 부모님은 귀가 시간에 엄격해요. 늦은 밤이 되면 그의 핸드폰에 문자가 쏟아지고 그 후에는 화난 목소리의 어머니가, 그 후에는 아버지가 전화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집으로 들어가며 대화를 합니다.

한 번은 이 애인이 아닌 남자친구가 "이 시간에 여자가 다니는 것이 위험하지 않아? 내가 데려다 줄게"라고 말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관계에서의 맥락을 벗어난 이야기였죠. 통상적으로 집까지 데려다주는 것은 밤길이 위험하기 때문에 보호자 남성이 보호받는 자 여성에게 배려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현실적으로 더 많은 대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입니다. 나와 그 친구의 집안 사정이라는 조건을 따져 가장 합리적으로 오랜 시간 함께 있을 수 있는 방법을 택한 것이지요. 나는 그 시간에 수도 없이 다녀 본 동네 길이라서 보통은 위험을 느끼지 않습니다. 가끔 길목에서 성추행범을 만났거나 사회 분위기가 흉흉하여 걱정이 되거나 하면 서로 합의한 지점에서 헤어지거나 그의 집 앞에서 택시를 타지요.

나와 친구가 했던 것처럼, 연애 관계에서 관성적으로 해왔던 어떤 행위들에 대해서 재의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통상적인' 관계에서가 아니라, 우리들의 관계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돌아보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고 싶어시킬 수도 있고, 집에 데려다주는 것으로 상대방이 소중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비판적으로, 때로는 한쪽만 그렇게 하는 것이 억울하면서도, '남자친구'라 하면 다 하는 것 이기 때문에 취하는 행동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관계에서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훨씬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고 이해할 수 있는 관계맺음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

by 자몽

* 알 그대로, 남성인 친구로 나의 애인이 아닌 애인인 내가 '남자친구'라고 부르는 순간 모두의 오해를 받는 사람. 그 오해를 번번이 풀어주는 것이 번거로워서 그냥 '애인이 아닌 남자친구'라는 불명칭을 부른다.



밤 10시에 TV앞에 앉지는 않지만, 어느새 다운로드를 누른다. 어떤 드라마가 유행하는지 그건 상관이 없다. 흘러본다. 누군가의 일상을. 그 일상이 조작된 것이든 아니든 상관은 없다. 나의 일상이 딱딱하고 심지어 멍했다고 느껴질 때, 그래서 나를 돌아보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해질 때, 드라마를 흘러본다. 타인의 삶을 바라보고 또 욕망하게 되는 건 일탈에 가깝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일탈로서의 흘러보기를 넘어서서 드라마를 틀어보는 것으로, 스스로에 대한 성찰과 통대기를 대신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완벽한 메이저가 아니라,
뭔가 부족한 메이저
이고 싶은 욕망

지난 2월에 MBC드라마 뉴하트(박홍규 연출, 황은경 극본)가 시즌 2에 대한 시청자들의 문의 채도와 몇몇 주연 배우들의 짝잘한 CF를 남기고 종영했다. 최강국(조재현 분)이라는 천재 의사와 박재현(정동환 분) 병원장과의 갈등, 최강국을 향한 타 의사들의 치밀한 정치 공세를 기반으로한 '영웅 이야기'와 은성(지성 분)과 혜석(김민정 분)의 풋풋한 사랑 이야기와 환자 사랑, 그리고 배대로(박철민 분), 김미미(신다운 분) 같은 조연들의 감초 같은 개 그까지 뉴하트는 시청자들에게 어필할만한 드라마였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사람들을 끌어당긴 것은 '병원'이라는 공간에 대한 해부였을 것이다. 병원이란 '부려용의 공간'에서 살아가는 인간 군상을 파헤치면서 또 적당히 그 안에서 있으리라고 충분히 상상되는 갈등들을 폭로하면서 이야기를 끌어 나간다. 뉴하트는 흉부외과 의사라는 '돈 못벌고 구질구질한 의사'상을 제시하고, 잘나가는 대학병원에 지방 대학교 출신 의사를 끼얹고, "환자 살리는게 중요하지"라는 말만 수천번을 하는 천재 의사를 부각시키면서 과연 욕망의 대상이 되는 이 시대의 인간상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한다.

한국 최초 심장 이식이라는 타이틀을 단 최강국은 한국에서 제일 잘나가는 대학병원 흉부외과의 과장에, 맘만 먹으면 미국에서도 제일 잘 나가는 병원에 갈 수 있는 천재 의사이지만, 그는 돈을 밝히지 않고,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것에만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가족마저 떠나 버린 사람이다. 해석은 항상 1등만 해온 전국 수석예다가 병원장의 딸이지만, 사람들이 기피하는 돈 못버는 흉부외과에 지원하고 아버지에게도 버림받았다. 은성은 한국 최고 대학 병원의 의사이지만, 지방대학 출신 고아에, 가난하기까지 하다. 이들은 누구나가 부러워하는 메이저이지만, 돈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버림받은 딸이기 때문에, 가난한 지방대학 출신이기 때문에 완벽한 메이저가 될 수는 없다.

여기서 사람들은 스스로가 그들을 욕망할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을 얻게 된다. 학벌 때문에 차별받고, 알리고 싶지 않은 과거지사와 가족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돈돈돈 거리는 사람에 맞서 인간미를 앞세우는 주인공들을 보면서 공감한다. 여기서 우리는 완벽한 메이저의 비인간성을 비난하면서 뭔가 부족한 메이저의 불합을 욕망한다. 잘나가는 의사가 어느정도 인간적인 아픔을 가진 사람, 남모를 고통에 혼자 눈물짓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면서 "재네들도 똑같구나"라는 공감을 이끌어냄과 동시에, 그것을 더 나은 삶, 또는 더 나은 인간상으로 규정하고 욕망하게 되는 것이다.

가부장적이고 자본주의적인 사회에서 권력과 부를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 주변사람들과 끊임없이 경쟁하고, 약자를 타자화 하는 것은 '정식'이다. 하지만 이 '정식'이 가능한 것은 언제나 권력과 부를 세습받은 계급에서만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언제나 사회에서의 부와 권력을 꿈꾸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 또한 명백히 알고 있다. 그것은 단순히 바라볼 수 없는 높은 나무나 이상향 따위가 아니라 이제 욕망할 수 없는 무엇이 되었으며, 나아가 욕망해서는 안되는 무언가가 되었다. 심지어 도덕적, 규범적 잣대를 들이대면서까지 부와 권력에 대한 맹목적인 돌진을 비난한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부와 권력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락'들을 인간미, 직업윤리, 사랑, 믿음 따위로 보완하려고 한다. 최강국, 은성, 해석이 가지고 있는

일상적 고민들과 관계들이 바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락'가 될 수 있다. 누구나 차별받을 수 있고, 누구나 억압받을 수 있는 세상, 결국 1등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1등을 욕망하기 보다는 2등을 욕망하며, 1등의 무자비함을 2등이 가진 뭔가 부족함으로 뒤집어 낸다. 그런 점에서 이 드라마의 주인공들은 의사치고는 뭔가 부족해서, 의사치고는 뭔가 '명청해서' 지지 받고, 공감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의사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의사가 될 수 없다. 드라마는 철저히 계급갈등을 삭제시키고 있다. 돈 밝히는 병원장과 생명이 최우선인 천재의사의 갈등,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의사와 지방대학 출신의 '꼴통' 의사의 갈등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계급 갈등이 아니라, 그들의 계급을 지킬 수 있는 당위가 무엇인가를 놓고 벌어지는 일종의 권력 싸움이다.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드라마의 주인공사이를 명백히 가르는 계급문제를 그들이 가진 몇몇의 '마이너성'으로 삭제시킴으로써, 이 드라마는 일상을 가장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주인공들은 자신들의 계급적 지위를 절대 포기하지 못한다. 은성이 병원을 관두고 고향에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최강국이 제 2병원으로 쫓겨나 있었을 때 그들이 고민했던 것은 부각되어왔던, 인간적인 고민이 아니라, 자신의 계급 회복에 대한 것이었다. 명백하게 그들은 드라마 안에서 은폐되어야만 했던 그들의 계급적 위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드라마 내내 의사라는 계급적 위치를 기반으로 캐릭터를 구축해 왔다. 결국 사람들은 메이저를 욕망하는 것에 대한 금기를 깨뜨리기 위해, 그들이 가진 '뭔가 부족함'에 초점을 맞춰버렸다.

더 나은 삶을 욕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 모른다. 아니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더 나은 삶이 하나라면, 사람들의 욕망하는 행복한 삶이 획일화되었다면 그것은 분명히 슬픈 일이다. 더 나은 삶을 욕망하고, 무엇을 더 나은 삶이라고 규정해버리는 것은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다는 차원을 넘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 또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배제하는 기제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뉴하트가 보여주고 있는 인간 군상은 어떤 의미에서 비현실적이다. 그들은 가족을 되찾기 위해 한국 의사 대신에 미국 의사를 하면 되고, 기분이 울적하면, 와인 바에서 술을 한잔 하면 된다. 누군가를 살리고 싶은 자기 당위를 위해 수술방을 잠으면 되고, 급한 일이 있으면 비행기를 타면 된다. 하지만, 이것은 사람들의 일상이 될 수 없다.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일지 모른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일상과 고민들에 공감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뭔가 부족한 메이저를 쉽게 욕망해 버리는 것의 본질은 현실로 부터의 도피, 더 잔인하게는 생존에 대한 착각이 아닐까. ●





〈달빛아래서의 만찬〉
아이나존스턴 지음 | 노진선 옮김
2003 | 넥서스Books

내 안에 지어진 **집** 감성과 직관의

글_한국성폭력상담소 이 산

어제 오후, 오전 시간을 함께 보낸 친구들과 점심을 먹으러 비빔밥 집에 들어갔다. 햇살이 좋은 날씨에 잘 어울리고 점심으로 먹기에도 좋은 음식이었다. 하지만 나는 식당에 들어오기 전부터 무언가 내 안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을 느꼈고, 음식을 고를 때쯤 그것이 '짜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함께 있는 친구들 중, 그 날 만나서 함께 식당에 오기까지 나에게 기분을 상하게 할 만한 말이나 행동을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짜증스러움과 여러 친구들과 함께 밥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 나를 무척 당황하게 했다.

좀 더 친한 친구들과 함께 있었다면 나는 '이유를 알 수 없게 짜증이 밀려 와, 왜일까?'라고 표현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친구들과는 나의 짜증스러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나의 의지를 발휘하여 짜증을 재빨리 누른 뒤 친절한 미소를 보이고 싶지는 않았다.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보면서, 나는 나도 모르게 손톱을 깨물었다. 나를 격하게 흔들지도 않고, 바람처럼 스쳐가는 것도 아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것 같은 짜증이 여전히 나를 건드리고 있었다. 내가

무척 좋아하는 닭고기가 든 비빔밥이 있었지만, 나는 산나물 비빔밥을 골랐다. 닭고기보다는 야채를 먹으려 하는 것이 나의 기분과 상관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메뉴판에서 음식을 선택했을 때, 나는 내 짜증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도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왔음을 깨달았다.

내가 선택한 것은 나의 '짜증'을 잠시 있는 그대로 느껴보는 것이었다. 짜증스러움을 언어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같이 있는 친구들에게 친절하게 굴지도 않고 예전만큼 말을 많이 하지도 않았다. 어떤 친구에게는 다소 공격적으로 느낄 수 있는 유머를 사용하기도 했다. 아마 같이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나의 기분이 '아주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내가 짜증을 있는 그대로 둔다고 해서 짜증이 가라앉지는 않았다. 억지로 짜증을 누름으로 해서 짜증스러운 감정에다 몇 스분의 슬픔이나 분노를 더하는 상황을 막은 것뿐이었다.

내 앞에 놓인 비빔밥을 얼마간 먹다가 함께 주문한 튀김이 나왔다. 튀김을 한 입 베어 문 순간 나 자신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이 음식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짜증스러울 땐 적당하지 않은 음식이군.' 그렇다고 젓가락을 바로 내려놓은 것은 아니었다. 튀김은 내가 좋아하는 맛이었고, 다른 음식 역시 맛이 있었다. 그 음식을 얼마나 더 먹는지는 이미 중요하지 않았다. 내가 나의 감정을 가차 판단 없이 그대로 두었고, 내 몸이 원하는 음식과 원하지 않는 음식을 느끼면서 그것이 감정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묘한 짜릿함이 느껴졌다.

어제의 나의 경험을 이대로 계속 쓰다 보면, 한 그릇의 비빔밥과 튀김 몇 조각에서 시작한 글이 어느덧 수십 페이지에 이를 것이다. 읽는 사람은 '그래서 대체 뭐가 어땠다는 거야?'라고 느낄 수도 있다. 계속 쓴다면 아마 열 몇 페이지쯤에 이르러서야 나의 짜증의 원인을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내가 느낀 짜증의 원인을 하루하고도 반나절이 지난 지금도 명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감정을 바로 숨기거나 처리해 버려야 할 어떤 것'으로 판단하



지 않고, 조금 갑작스럽긴 했지만 소중하게 만나야 할 손님으로 대하고 있다. 그 감정은 아직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았지만, 불과 몇 시간 뒤에 나를 온통 뒤흔들어 일상생활을 못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아직 다가오지 않은 흔들림을 두려워하기 보다는 지금 이 감정이 내 몸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을 천천히 느끼고 있다. 이것이 내가 '달빛 아래서의 만찬'을 읽고 시작한 첫 번째 실험이다.

'달빛 아래서의 만찬'은 섭식장애에 관한 책이다. 섭식장애를 맞아들이고 떠나보내는 과정을 동화와 신화의 은유를 통해 알기 쉽게 이야기하고 있다. 에세이인지 평론인지 알 수 없게 되어버린 정체모름이 서평처럼 장르를 알 수 없는 '이야기'가 펼쳐진다. 저자는 오래전 축적된 경험의 지혜를 아주 가까운 곳에 앉아 마치 오늘 있었던 일처럼 들려주는 할머니와 같다. 그 이야기는 읽는 사람의 경험과 섞이면서 신비로운 치유의 빛깔을 띄게 된다.

현대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섭식장애를 '자기관리'나 '충동절제'와 연관 짓는다. 그러나 섭식장애는 히스테리나 폐쇄공포처럼 경험자의 대부분이 여성으로 알려져 있다. 가부장 사회에서 겪는 여성의 경험, 자신의 욕망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공통적인 감각이 섭식장애와 관련이 있다. 여성성을 억누르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특별한 직관과 감수성을 외면하는 가부장사회에서, 많은 여성들이 생존을 위해 섭식장애를 선택한다. 섭식장애를 떠나보내는 것은 섭식장애를 나의 삶에서 '삼으로 떠내듯이' 없애는 것이 아니라, 섭식장애가 없어도 생존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진짜 문제와 차마 다루지 못했던 감정을 직면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감정을 직면하면서 겪는 혼란과 고통에 흔들리는 자신을 인정하고, 그 흔들림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대하는 것이다.



나는 이 책을 읽는 동안 나의 직관을 발휘하여 몸과 마음의 신호를 받아들이는 작은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을 느꼈다. 사회에서 억누르려 하는 그 어떤 충동도, 어떤 감성도 자유로운 공간, 그렇게 자유를 기 위해 나의 몸의 모든 감각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공간이다. 이 아름답고 특별한 집을 짓도록 도와주는, 게다가 재치까지 겸비한 매뉴얼로 이 책을 소개한다. ●

#1...

"It just turned out that way."

EAGLES, The Sad Cafe

신촌역에서 기숙사까지는 너무 멀었다. 중앙도서관의 별 들어오는 그 자리에서 나는 '사춘기'라는 그림이 나오는 소설을 읽었다. 사람들은 친절했고, 나는 돈이 없었다. 그렇다, 모든 이야기는 가난으로부터 시작된다. 아니 그 이전의 배고픔에서부터 시작된다. 아니 그것들이 구제될 수 없었던 외로움으로부터 시작된다.

불임성 없는 신입생에게 4월은 꽤나 잔인한 계절이었다. 집을 떠나오면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오면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면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지만, 서울은 생각보다 좁았고 과외자리는 지방학생에게 보이지 않았다. 게시판에 붙어 있던 '과외선생님 모심' 전화번호를 몰래 떼어 전화를 걸어보았더니 무미건조한 목소리는 이력서를 가지고 오라 했다. 수수료가 있다고도 말했다. 찬란한 햇살에 눈이 부셨던 나는 충동적으로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2만원이 필요하다고 했고 그 다음 날 딸에게 2만원을 부쳐줄 수 없어 눈물로 밤을 지냈다는 엄마의 이야기를 동생에게 들려야 했다. 그렇다. 나는 가난했고 외로웠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밤샘 술자리에서 나는 즐겁지만 즐겁지 않았다. 며칠 사이 한꺼번에 쏟아졌던 그 고백들도 나는 반감지 않았다. 전화를 타고 오는 그 넘쳐나는 불행들에 대해 큰 말로서, 언니로서, 누나로서 책임감과 강박을 느끼며,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무력감에 몸을 떨며, 그러나 멀리 떨어져 있다는 안도감을 느끼며, 그래서 더 크나큰 죄책감에 몸을 밀어 넣었다.

갑자기 마주친 그 음악에 괜히 핸드폰을 만지작대며 멈추어 섰던 그 거리를 알고 있는가. 라디오에서 잡음이 두런두런 섞인 채 흘러나오던 그 노래 때문에 차마 내리지 못했던 그 버스를 알고 있는가. 신나게 대화를 나누다가 흘러나오던 그 기타음에 가슴이 저릿하여 맥주와 말을 함께 삼켰던 그 어두운 비를 기억하는가. 원치 않았던 기억의 편린을 사침가득한 귀로 흘려보내던 그 음악, 그 순간들.

사실은 한 명을 더 쓸 필요가 없었지만 신촌 구석 지하의 맥주바 사장님은 나를 고용해주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술먹고 놀고 있을 금요일과 토요일 밤부터 새벽까지 일하는 것이 약간 억울하기는 했지만, 커다란 스피커와 높은 천장과 어두운 조명, 기다랗고 꺼만 앞치마가 좋았다. 일은 익숙해지지 않았고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아카라카를 외치는 인간들은 볼보기 싫었다. 악수하자며 손을 만지는 술취한 회사원도 정그러웠다. 그러나 생일을 맞은 즐거운 사람들이 사장님 갖다 주는 케이크는 나 혼자 다 먹었고 새벽 네 시에 가계문을 달고 나오면 옆 골목에 있던 친구의 하숙집으로 가서 함께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며 음악을 들곤 했다. 기숙사 룸메이트는 주말이면 수원에 있는 집으로 갔고 나는 일요일을 나른하고 느슨하게 컵라면과 구구몬과 배란다에서 몰래 피는 담배로 마무리하곤 했다. 그 시절 나는 항상 속이 쓰렸고 컵라면을 먹고 토했으며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학회실에 앉아 있다가 토하기도 했고 술을 먹은 다음날 아침에 토하기도 했다. 일하던 바는 항상 똑같은 cd를 틀었고 정해진 순으로 노래들이 흘러나올 때, 음악에 묻혀 사람들의 말소리도 배경음악처럼 들릴 때에야 나는 비로소 안도감을 느끼곤 했다.



*Out in the shiny night
the rain was softly falling
The tracks that ran down the boulevard
had all been washed away
Out of the silver light
the past came softly calling
And I remembered the times we spent
Inside the Sad Cafe*

담배도 차마 사람들과 함께 피우지 못했던 그 시절, 백 번만 더 들으면 죽을 것 같이 느껴지던 그 노래. 다섯 번 넘게 들을 때까지 차마 제목을 물어보지 못했던 그 노래. 첫 음을 들으면 아직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노래. 가난하고 나약했던 그러나 살아가기 위해 어두컴컴한 지하로, 새벽길로, 어지러운 하숙집으로 숨어들던 그 시절의 노래.

그 해 겨울, 함께 담배를 나누어 피던 일 년을 함께 나누었던 사람들과 학관 3층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였고, 밤이 깊어져서 둥그렇게 앉아 나는 매우 비밀한 기억을 내미는 심정으로 sad cafe를 그들 앞에서 불었다. 백 번을 넘게 들었지만 나는 죽지 않았고 그 어느 곳에서 sad cafe가 흘러나와도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아 하는 것을 이상하게 느끼지도 않게 되었다. 그 시절의 나는 그 곳에 있지만 아직 기억이라 부르기엔 마음이 아파, 일부러 그 노래를 듣지는 않는다. 하지만 가끔, 당신이 모른다 할지라도 당신이 통째로 공감하지 않더라도 상처받거나 아파하지 않기에, 그 바에서 그 노래를 신청한다. 아픔과 공감은 서로 간의 이해의 노력 속에서, 소통의 관계 속에서 어느 순간 불현 듯 이루어진다는 것을 조금 알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내가 강해진 것도, 성장한 것도, 세상을 알아버린 것도 아니다. 단지, 지금 그럴 수 있기 때문이다. 둥그런 사람들 속에서 그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기 때문이었듯이. ●

by 보노

#2... Like a Star

earth, wind, and fire <september>

고등학교, 자율학습이 없던 늦은 봄날 토요일 오후, 내가 좋아하던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 따뜻한 햇살, 자전거로 달리던 강가, 상쾌한 바람, 그리고 이 노래.

롤러코스터 <어느 하루>

학교에서 단체로 봉사활동을 갔다 돌아오던 버스 안, 내가 좋아하던 친구와 더 이상 단짝이 아니라는 것에서 느낀 절망과 혼란, 환했지만 색은 없었던 풍경들.

corinne bailey rae <like a star>

익숙했었지만, 더 이상 익숙하지 않던 고등학교, 낯새로 기억난 설레임, 확고함과 망설임사이의 온몸 떨리던 고백, 싱거운 대답, 나오지 않던 눈물

중 아했다. 만나면 즐겁고 계속 보고 싶고, 안고 싶고, 단짝이라고 생각(했다/해야 한다고 생각했
다). 그러다 어느 순간 '내' 단짝 친구에게 접근하는 친구가 있었다. 그 둘이 조금씩 친해지면
서 미친 듯이 질투했다. 그리고 당황했다. '우린 친구 관계가 아니었던가? 이런 심한 질투는 연애관
계에서나 있는 건데? 어떻게 된 거지?' 헛갈렸다.

그냥 그렇게 좋아했다. 자책했다. 슬퍼했다를 반복하면서 고등학교 시절은 지나갔다. 대학교에 들어
와서도 한참이 지난 후, 만나러 갔다. 고백했다. 나에게 있어서 그 관계를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
무나 중요했기에 "사랑했어."라고 고백했다. ("사랑해"가 더 정확하지만) 친구는 시큰둥했다. 돌아
오는 길에 울고 싶은데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무얼 기대했었는지는 모르겠다.

지금(은/도) 좋다. 가끔씩 전화한다. 방금 생각난 김에 한 번 해봤다. 안부 묻기, 침묵이 많은 대화, 싱
거운 웃음. 심장은 뜨거워지지만 박동이 빨라지진 (않는다/않으려 애쓴다). 언제나 내가 먼저 끊게 되
는 전화.

무슨 관계인 걸까? '짝사랑' 이 단어로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일까. 그 친구와의 같은 공간에
서 만들었던 기억, 주고 받았던 대화와 감정들이 우리 사이에 무엇을 만든 것일까. 서로에게 다르게
비춰지는 끈. 그건 무슨 색일까. 우정, 사랑, 연민, 애정, 우애 그 어떤 것으로도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
는다. 언어로 설명하긴 힘들지만 다른 색이고 순간순간 계속해서 변한다.

이런 고민 덕분인지 나는 관계를 사회에서 주어진 타이틀과는 다른 방식과는 보는 것 같다. 같은 또
래 이성을 연애관계로만 설정한다던가, 나이가 어리면 (아직 뭔가 부족한) '미성년' 으로 본다던가, 교
수님이면 (모셔야 할) '어른' 으로 본다던가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사람과의 소통 속에서 관계는 만
들어진다. 그 사람의 역사, 나와 놓여있는 맥락에 따라 모두 다른 빛깔의 끈이 만들어진다.

그 끈의 색이 무엇인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바라보는 것이 나에게 있어 관계맺음이다.

요즘 들어, "연애하고 싶어"라고 주구장창 이야기해온 것이 뭔가 정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가 욕망하는 관계맺음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연애"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빛깔인 것 같다. 둘이(혹
은 여럿이) 끈을 엮어가는 것, 원하는 색깔로만 만들 수는 없겠지. 그래도 아름다운 빛깔을 꿈꾸며 관
계를 만들어간다. ●

by 오리

강의실에서는
성희롱적, 성폭력적, 성차별적 발언들이
'똥' 유형처럼 떠다닙니다.

문제제기를 할라치면,
그저 유머였을 뿐이다
과학적 조사 결과를 인용했을 뿐이다
나는 가치 중립적일 뿐이다
그것은 학생의 발언이었다.
학생들의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 막지 않았을 뿐이다
똥똥

'무감각한 내탓이 아니라,
예민한 니탓이다' 로 돌려버리는
'똥이다' 유형이 똥똥 떠다닙니다.

강의실에서 문제제기를 할라치면
두려워지는 것은
사건 처리를 지난하게 이끌고갈 너희들과
수많은 2차 가해들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공개적으로 사건 처리를 할라치면,
영예훼손으로 고소할지도 모르는,
몇몇 교수님들의 '똥같은' 이야기들을
모집하겠습니다!

'똥같은' 이야기는 제보자나 교수님의 실명은
식제된 채, 익명으로 들어갑니다.
'똥같은' 이야기에 기분 더러워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공감의 리본이 달립니다.
'똥같은' 이야기는
무서워서 파하지 않고 더러워서 파하는 것이지만,
적어도 더럽다는 사실을 인지시키기 위해,

해당 교수님에게
<내눈에사과> 직접 배달 들어갑니다.

강의실의
'똥' 같은 이야기를
받습니다.



다음 호부터 고정 주제로 들어갈
강의실 똥같은 이야기!
<내눈에사과 - 강의실 똥같은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action-fem@yonsei.ac.kr